

1960~70년대 한국학의 토대와 네트워크*

— 아시아학술기관교류위원회(CEAI), 아세아문제연구소(ARC),
한국학공동위원회(JCKS)의 활동을 중심으로

김 인 수**

[초 록]

이 글은 미국 사회과학연구협회(SSRC) 산하의 아시아학술기관교류위원회(CEAI)와 한국학공동위원회(JCKS), 그리고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ARC)의 관계와 활동을 중심으로 1960~70년대 한국학의 형성과정을 추적한 것이다. 한국학은 냉전기 미국 중심의 비대칭적인 글로벌 지식생산체계에 종속된 상태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또, 중국학과 일본학의 그늘이 한국학의 지식생산 전반을 뒤덮고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5A02025592). 초고를 읽고 논평해주신 김정일 선생님과 글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 전임연구원

주제어: 냉전, 한국학, 사회과학연구협회(SSRC), 아시아학술기관교류위원회(CEAI), 한국학공동위원회(JCKS), 아세아문제연구소(ARC), 공생산, 아카데미즘 Cold War, Korean Studies,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SSRC), Council on Exchange with Asian Institutions (CEAI), Joint Committee on Korean Studies (JCKS), Asiatic Research Center (ARC), Co-Production, Academism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카데미즘의 시민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의 자원을 구축하고 동원해간 결과로 얻어진 결실이 당시의 한국학이었다. CEAI가 애초 ARC를 지원하기로 했을 때는 중국학을 강화한다는 목적이 분명했지만, 이후 ARC는 한국학의 본산으로 거듭났다. ARC에서 형성된 네트워크와 지적 자산은 JCKS로 이어졌으며 다시 ARC로 순환되었다. 이처럼, 1960~70년대 한국과 미국에서 형성된 한국학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과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산물이었다(‘한국학의 공생산’). 한국학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주체들이 가장 강조한 것은 ‘자료’와 ‘실증’이었다. 록펠러재단과 포드재단의 지원을 받은 ARC가 가장 먼저 돌입한 사업은 기초자료의 수집과 편집이었다. JCKS는 1967년에 결성된 이후 곧바로 사서들의 학술회의를 주최했다. 나아가 JCKS는 소련의 한국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학술데탕트의 흐름을 만들어내고자 힘썼다. 독재에서 유신으로 치달아간 1950~70년대 남한, 그리고 세습독재의 틀을 구축해 갔던 당시 북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학(Science)으로서의 한국학’의 제도화, 지식자원의 확충이 오히려 냉전의 본산인 미국이 제공하는 자금과 네트워크에 의해 가능했다. 한국학의 출발에 냉전이 미친 영향은 지대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가 갖는 의미를 모두 냉전으로만 환원할 수는 없다.

1. 문제제기: 숨겨진 네트워크와 냉전지식의 이면

한국에서 ‘한국학’이라는 용어가 학계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가 1966년 11월 1~4일에 걸쳐 개최한 「제5회 동양학심포지움 개요: 한국학의 방법론과 체계」로 보인다. 이 회의는 ‘판소리 장르의 문제’, ‘조사의 문법적 처리’, ‘송대(宋代) 시에 관한 문제’, 그리고 명칭이 없는 또 하나의 세션, 이렇게 총 4개의 세션으로 조직되었다.¹⁾ 한 연구에 따르면, 학계 안에서 ‘한국학’이 본격적인 학

술의 의미로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조금 뒤에 개최된 ‘한국학의 문제점’(1968, 중앙대학교), ‘한국학 발전의 공동과제’(1968, 아카데미하우스)의 두 학술회의에서이다.²⁾ 이 가운데 특히 ‘한국학의 문제점’ 학술회의는 1968년 10월 18일 중앙대학의 시청각실에서 열린 것으로서, “이승녕, 임철재, 조기준, 천관우 씨가 한결같이 학문으로서의 한국학의 성립여부를 부정적으로 논의하는 바람에 결국 ‘학(Science)으로서의 한국학의 성립여부’를 묻는 심포지움으로 변질되고 만” 쓸쓸한 뒷맛을 남겼다. “당장 국사학과를 독립시켜 요원을 배출하지 않으면 …… 한국과 동수 이상의 한국사가를 가진 일본의 한국사학계에 한국사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천관우의 경고, 그리고 “(국사학, 국문학, 국악 등 국수주의적인) 국학(國學)이 학문으로 논의되는 한국의 후진성 때문에 …… 자료를 들출 줄 모르는 국학 각 분야에서 한국학은 아직 도서관학의 단계에조차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이승녕의 언급은 유난히 뼈아팠다.³⁾ 해방이 되었지만 한반도문제에서 일본 학술의 주도권이 여전하다는 위기감과 그 힘을 대안적 제도화를 통해 해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그 제도화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전문적 학술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절실함이 이 회의의 저변에 주조저음으로 흐르고 있었다.

한편, 당시 이 한국학이라는 용어는 한말의 ‘본국학’이나 일제하 1930년대의 관변 조선학, 그리고 민간의 조선학운동, 그리고 해방 이후 유행한 국학과는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1960년대 미국에서 활성화

-
- 1)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편집부(1966), 「제5회 동양학심포지움 개요: 한국학의 방법론과 체계」, 『동아문화』 6호,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p. 205. 명칭이 없는 세션은 사회과학 부문에 해당하는데, 「한국사회조사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고영복), 「근대화과정과 가치관 연구의 과제」(김경동)의 논문이 포함되어 있다.
 - 2) 김경일(2003), 「한국학의 기원과 계보: 한국과 동아시아,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64호, 한국사회사학회, p. 131.
 - 3) “한국학의 문제점”, 동아일보(1968.10.19).

된 *Korean Studies*의 번역어에 가까웠다. 한 신문기사는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낸 신태환 박사가 미국의 대학에서 약 1년 간 ‘한국학’을 강의하고 돌아왔음을 소개하면서, 그의 말을 빌려 서양에서 남한이 일제에 의해 왜곡된 이미지로 알려져 있고 북한에 관한 책들도 불확실한 것들이 나돌고 있어 큰 문제이며 게다가 한국학은 일본학과 중국학에 비해 대단히 열세여서 많은 폐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⁴⁾ 마침 포드재단(The Ford Foundation)이 미국의 주요대학들에게 *Korean Studies*를 위한 연구비 펀드를 제공하고,⁵⁾ 또 *Korean Studies*가 사회과학연구협회(The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이하 SSRC) 안에서 지역연구의 한 분야로 특화된 것이 1967년의 일이다. 특히, 1967년 6월에 ‘한국학공동위원회’(The Joint Committee on Korean Studies, SSRC+ACLS. 이하 JCKS)가 결성된 것은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이 위원회는 포드재단으로부터 3년 간(1967년 7월~1970년 6월) 연구활동비로 \$65,000을 지원받았고, 주로 학술회의(conference)를 통해 미국 내의 한국학(*Korean Studies*)⁶⁾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JCKS는 SSRC와 미국 학술단체협의회(The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이하 ACLS)

4) “미국 안의 「한국학」”, 경향신문(1967.11.8).

5) *Korean Studies*를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포드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대학은 콜롬비아대학, 하버드대학, 하와이대학, 프린스턴대학, 워싱턴대학이었다. 이들 대학은 각각 \$100,000씩의 지원을 받았다. JCKS (The Joint Committee on Korean Studies)는 이들 대학 간의 협의의 산물이었다(“Conference on Library Resources on Korea (1967.11.10.~11, University of Washington. JCKS), p. 1”, Folder 2776, Box 237A, RG 2, Accession 2, Series 1,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records (FA021), The Rockefeller Archive Center). 프린스턴대학은 한국학프로그램의 미비로 이후 연구비를 반납했다.

6) 본고는 *Korean Studies*를 한국학으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또, 당시에 한국에서 이루어진 유관 연구들도 한국학으로 지칭한다. 한반도 분단의 상황에서 한국학이라는 용어에 위화감이 없지 않고 그리 만족스럽지도 않으며 또 남한을 중심으로 한 냉전시대의 인식을 재생산할 우려도 있지만,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태에서 부득이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가 공동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John K. Fairbank가 주도한 아시아학술기구교류위원회(Council on Exchange with Asian Institutions, 이하 CEAI)에서 분화되어나온 조직이었다. 결성 당시 JCKS의 위원은 Edward W. Wagner (의장), George M. Beckmann, Gari K. Ledyard, Chong-Sik Lee, Glenn D. Paige였고 SSRC의 Bryce Wood가 스텝으로 참여했다.⁷⁾

본 연구는 이 JCKS의 토대가 되었던 인물들의 네트워크와 그 초기(1967~76) 활동의 궤적을 살펴봄으로써, 냉전기 한국학의 토대가 어떻게 구축되었고 또 이를 가능하게 했던 숨겨진 힘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새롭게 발굴하고자 한다. 우선, 1950년대 후반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The Asiatic Research Center, 이하 ARC⁸⁾)에 대한 록펠러재단의 지원에서 발견되는 인적 네트워크를 분석한다. 둘째로, SSRC 내의 CEAI가 포드재단을 대리하여 ARC와 교섭하면서 한국학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형성해가는 과정을 살펴본다. 셋째로, JCKS가 출범과 동시에 최초로 주관한 학술회의(The Conference on Library Resources on Korea, 1967.11.10.~11, University of Washington)가 한국학 아카데미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 초반 JCKS와 소련의 한국학자들 간에 이루어진 교류를 살펴봄으로써 한반도냉전의 외부에서 시도되고 있었던 ‘학술 데탕트’의 흔적을 발굴한다.

7) “Committee Briefs” (SSRC(1967), *ITEMS*, 21(4), p. 51).

8)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의 현재 영문명칭은 The Asiatic Research Institute (ARI)이다. 그런데 본고에서 다루는 1960~70년대에는 The Asiatic Research Center (ARC)라는 명칭으로 통용되었다. 본고에서는 자료인용에서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당시 명칭으로 그대로 사용한다.

2. 기존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그동안 한국학(Korean Studies)의 계보와 성격에 관한 연구는 미국의 지역학(Regional Studies)에 대한 연구와 연계되어 다수 축적되었다. 대표적인 한국학자인 브루스 커밍스(B. Cumings)는 냉전 초기 지역학이 미국의 전지구적 헤게모니와 대항헤게모니에 대한 지식의 공백을 메우는 일에 봉사했으며, 거기에는 OSS, CIA, FBI의 그들이 질게 드리워져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권력과 돈이 먼저 학자들의 연구주제를 발견하고 연구의 장을 규정해 놓았으며 학계도 이를 추수해왔지만, 이제는 그로부터 자유로운 비판적 위치를 견지해나갈 책임이 대학과 학계에 있다고 주장한다.⁹⁾ 채오병(2014)은 브루스 커밍스와 이매뉴얼 월러스틴(I. Wallerstein)의 논의에 기초하여 지역학을 미국의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규정하면서, SSRC와 연방정부기금, 민간재단의 지원현황을 개괄하였다. 그에 따르면, 지원의 결과 미국의 냉전 의도와 상충되거나 그것이 파열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다.¹⁰⁾ 김경일(2003)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의 한국학 연구자들의 지적 배경과 자아정체성을 중심으로 한국학의 계보와 동향을 그려내었다. 특히, 미국 학계 안에서 한국이라는 소재가 차지하는 주변성, 변방성과 이를 극복하려 한 연구자들의 고투의 흔적을, 그 내부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함께 응시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물론, 그는 미국 내 한국학 네트워크의 자족적이고 폐쇄적인 성격, 문제의식의 미국중심성이 지닌 문제도 지적하였다.¹¹⁾ 미국에서의 한국학의 계보와 주요

9) 브루스 커밍스(1999), 김홍중 역, 「연구영역의 전이: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지역 연구와 국제연구」,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김경일 편), 문화과학사, pp. 272-274, pp. 315-317.

10) 채오병(2014), 「냉전과 지역학: 미국의 헤게모니 프로젝트와 그 파열, 1945-1996」,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104호, pp. 299-302.

연구주제를 세대별로 체계적으로 서술한 것은 찰스 암스트롱(Armstrong, 2014)이다. 그는 한국학의 기원을 구한말 미국인 외교관과 상업종사자들, 그리고 선교사들 — Horace Underwood, Henry Appenzeller, Homer Hulbert, James Gale 등 — 이 한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던 데에서 찾는다(1세대). 이어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50년대까지 미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이들 — Edward W. Wagner,¹²⁾ James B. Palais,¹³⁾ Gari Ledyard¹⁴⁾ 등 — 이 한국학에 대거 충원되었고 이들이 2세대를 형성했

11) 김경일(2003), 「한국학의 기원과 계보: 한국과 동아시아,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64호, pp. 150-153, pp. 160-161.

12) Edward Willet Wagner (1924~2001): 하버드대학 재학 중 제2차 세계대전으로 군에 징집되어 참전했다. 1945년 이후 일본과 한국의 미군정(문관)에서 근무했다. 미국으로 복귀해 학사, 석사(1951)를 받고 다시 일본의 텐리(天理)대학에서 3년 간 연구했다. 지도교수는 다카하시 도루(高橋亨)였다. 이후 이병도의 지도하에 서울대학교에서 5년 간 근무했다. 1959년에 하버드대학에서 한국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버드대학에서 한국학을 제도화한 주역이다. 그의 첫 작품은 *The Literati Purges: Political Conflict in Early Yi Korea* (1974)로, ‘동양적 전체주의’(Oriental despotism)론의 틀에서 벗어나 조선사를 서술한 것이다. 송준호(전복대)와 협업하여 수행한 조선의 족보와 문과방목을 기초로 한 연구가 유명하다(“Obituary” written by James B. Palais, <https://www.cambridge.org>, 검색일: 2020.8.6).

13) James Bernard Palais (1934~2006):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1957년부터 1년간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학에 천착하였고, 위싱턴대학에서 한국학의 제도화에 주력했다. 1970~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1970년대에 박정희 정부가 \$1,000,000의 지원금을 주려 했으나, “인권노동운동이 탄압받고, 남북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받을 수 없다”며 거절한 일화로 유명하다. 2002년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초대 원장을 맡기도 했다(“한국학 1세대” 팔레, 민주화운동도 동참”, 한겨레(2011.2.27)). 주요 작품으로 *Politics and Policy in Traditional Korea* (1975), *Confucian Statecraft and Korean Institutions: Yu Hyong-won and His Times* (1996) 등이 있다.

14) Gari Keith Ledyard (1932~): 1932년 뉴욕에서 태어났다. 1953년에 미군에 입대하여 일본과 한국에서 복무했다. 1956년에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에 진학했고 1963년에는 서울에서 한글을 연구했다. 1966년 콜롬비아대학 교수가 되었고, 1977년에는 한국학교수로 발령받았다. 1994년에는 콜롬비아대학 한국학 세

다고 정리했다.¹⁵⁾ 3세대는 1966년부터 1982년까지 한국에 파견되었던 평화봉사단(Peace Corps) 출신의 인물들 — David McCann, Edward Shultz, Laurel Kendall, Milan Hejtmanek, Michael Robinson, Carter Eckert, Bruce Comings, Donald Baker, Edward Baker, Donald N. Clark 등 — 로 채워졌다.¹⁶⁾ 이들은 조선 후기의 내재적 발전, 일제시대의 근대적 성장,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에 주력했다. 마지막으로 4세대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은 K-pop, 한국문학, 한인디아스포라, 북한에 관한 연구로 나아가고 있다.¹⁷⁾

포드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ARC의 학술활동과 김준엽이 주도한 공산주의(북한학) 연구는 최근 집중적인 연구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문상(2014)은 포드재단의 연구지원프로그램을 통해 ARC와 근대사연구소(Academia Sinica 산하. Taiwan)가 서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이 네트워크 위에서 냉전시대를 풍미한 페어뱅크의 ‘충격-반응론’의 중국사 이해, 중화인민공화국을 근대화화의 실패이자 이탈로

기금교수(King Sejong Professor)가 되었다. 1988년에는 북한의 초청으로 방북하기도 했다. 주요 작품으로 *The Korean Language Reform of 1446* (1998), *The Dutch come to Korea* (1971) 등이 있다(https://www.academia.edu/5481679/Korean_Studies_Pioneers_Gary_K_Ledyard, 검색일: 2020.8.6).

- 15) 여기에는 재미(在美) 한국인 한국학자들의 이름이 빠져 있다. 이정식(펜실베이니아대학), 서대숙(하와이대학), Andrew Nahm(Western Michigan University), 장윤식(브리티시콜롬비아대학) 등이 그들이다.
- 16) 최근에 평화봉사단 출신 한국학자들의 학문세계에 관한 연구가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Kim, Seung-kyung and Michael Robinson ed. (2020), *Peace Corps Volunteers and the Making of Kore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17) Armstrong, Charles (2014), “Development and Directions of Kore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ontemporary Korean Studies*, 1(1), pp. 37-39, pp. 45-46. 참고로, 구소련의 한국학의 계보와 흐름은 Lankov, Andrei (2014), “Korean Studies in the Russia of the Soviet Period”, *Journal of Contemporary Korean Studies*, 1(1)의 연구가 상세하다.

규정하는 시각이 한국과 대만 학계에 전파, 확산되었다고 보았다.¹⁸⁾ 김인수(2017)는 1965년에 ARC가 개최한 “아세아에 있어서의 근대화문제”(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roblems of Modernization in Asia, 이하 ‘근대화회의’)의 사회과학 섹션을 분석하여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의 수집, 사회과학 아카데미즘의 구축이라는 한국 학계의 열망이 미국 사회과학 지식의 확산과 서로 맞물려 있었음을 확인했다.¹⁹⁾ 김성보(2018)는 한국과 미국에서의 북한연구가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하여 냉전 지식의 동요가 두드러졌던 시기에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한국과 미국에서의 북한연구 경향의 미묘한 분리를 드러낸다. 이를테면, 김일성과 동북항일연군의 활동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서대숙의 연구(*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818-1948*, 1967)나 공산혁명을 민족주의적 근대화의 또 하나의 경로로 재평가한 페어뱅크의 ‘전환’이 이루어진 미국에서의 중국, 북한 연구와는 달리, 김준엽이 주도한 ARC에서의 북한연구는 이전까지의 반공반북논리를 재생산하는데에 그쳤다는 것이다. Robert Scalapino와 이정식이 공저한 *Communism in Korea* (1972)도 북한을 냉전지식 속에서 재현하기는 했지만 수준 높은 학술과 실증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²⁰⁾ 이봉범(2020)은 1960년대 북한학이 냉전에 의해 탄생하여 한국학의 중심영역으로 부상했고 이후 그 인식론적 틀과 범주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

18) 정문상(2014), 「포드재단(Ford Foundation)과 동아시아 ‘냉전지식」, 『아시아문화연구』 36호, pp. 187-191.

19) 김인수(2017), 「한국의 초기 사회학과 ‘아연회의’(1965): 사회조사 지식의 의미를 중심으로」, 『사이間SAI』 22호, pp. 76-79.

20) 김성보(2018), 「미국·한국의 냉전 지식 연결망과 북한연구의 학술장 진입」, 『근대화론과 냉전 지식 체계』(신주백 편), 해안, pp. 224-227, pp. 237-239. 스칼라피노와 이정식의 연구과정에 관한 정보는 로버트 스칼라피노·이정식 공저(2015), 한홍구 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 돌베개의 “<부록> 이정식 — 한홍구 좌담”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한다. 다만, 1960년대 ARC의 북한연구가 실증적인 비교방법론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인 제약을 일부 해소할 수 있었고, 또 자료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전문성의 제고를 가능하게 했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평가는 매우 이색적이다. 이를테면, ARC의 북한연구는 포드재단의 원조, 박정희 정권의 반공동원과 심리전, 프로파간다 전략의 테두리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반공정권의 ‘공식허가’에 힘입어 오히려 김남식, 최광석 등 ‘거물간첩’을 합법적인 정보소스로 활용할 수 있었고, 김일성선집(1960)뿐만이 아니라 1962년까지 북한(평양)에서 발간된 각종 최신자료를 참고하여 학술적 성격을 높여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²¹⁾

이처럼 1960~70년대 한국학에 관한 종전까지의 연구는, 냉전기 지역학의 일환으로서 출발했던 한국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의 확산, 한국학의 발원과정에 개재되어 있었던 포드재단과 미국 정보기관의 흔적을 가시화하는 실증연구의 심화, ARC의 북한 및 공산주의 연구에 대한 재평가 시도의 등장으로 그 경향을 정리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첫째, 한국학의 형성과정에 관해 일국사 단위에 한정하여 서술하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한국과 미국 간의 학술 네트워크가 교섭을 통해 ‘동시에’ 만들어지고 이것이 다시 한국학의 동향을

21) 이봉범(2020), 「냉전과 북한연구, 1960년대 북한학 성립의 안팎」,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56호, pp. 58-60. 당시 ARC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북한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끔 인가받은 유일한 연구기관이었다. 1967년에 아시아재단의 스타인버그(David I. Steinberg)가 쓴 보고서에 따르면, “ARC만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북한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끔 허락을 받았다. 북한에 대한 ‘합법적인’ 자료는 이곳에서만 얻을 수 있다. 그 사용은 연구소 구성원에 한정되어 있다. …… 북한에 대해 글을 쓰는 학자는 종종 비과학적인 어법을 써야 한다. ……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정치학에서 그런 제한이 많다.”(“Problems and Prospects for Social Science Research on Korea: A Paper for the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April 6~7, 1967, Western Michigan University, p. 18,” Folder 2784, Box 237A, RG 2, Accession 2, SSRC records (FA 021), The Rockefeller Archive Center).

좌우하는 힘으로 작용했던 경과에 관한 분석이 부족한 것이다. 김성보(2018)와 이봉범(2020)의 연구가 그나마 그 네트워크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지만 지극히 간략하고 또 자료에 기초한 체계적인 접근을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둘째, 한국학 아카데미즘의 토대가 된 자료(materials)의 의미와 그 지위를 정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1960년대에 진행된 한국학의 학문적 제도화 과정에서 자료의 문제가 가정결정적인 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거나 소극적으로 평가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당시 한국학(Korean Studies)이 처했던 레퍼런스 구축의 문제, 정전화(canonization)의 문제가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학, 일본학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학술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지는 당시 한국학의 모든 주체들에게 대단히 긴박한 과제였다. 셋째, 1970년대 한국학에서 시도된 다양한 냉전우회의 움직임들, 예를 들면 미국의 한국학자들이 소련의 한국학자들과 교류를 시도한 점은 아예 시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 사례는 냉전기 복수의 한국학, 다양한 한국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는 한국학의 출발은 냉전의 구조적 환경에 구속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안에는 냉전논리로만 환원될 수 없는 부분이 내포되어 있었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²²⁾ 당시 한국학의 주체들이 어떤 문제의식, 난관, 곤경에 처해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돌파해나가기 위해 이들이 어떤 시도를 했는지를 발굴하여 드러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SSRC 산하 CEAI와 JCKS의 네트워크와 활동을 발굴하여 제시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연구사의 몇몇 한계를 극복해

22) 박현선(2015)은 지역학의 학자들 상당수가 지역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지적으로 급진화되었고 여성 연구나 디아스포라 연구, 학제 간 연구 등의 여러 변형들을 통해서 ‘지역 정보원’의 속삭임이 아닌 ‘대안 담론 생산자’로서의 목소리를 개진해왔다는 점에 착목하여, 이를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규정하였다 (박현선(2015), 「냉전 문화와 한국학」, 『사이間SAI』 18호, p. 282).

보고자 한다.

CEAI와 JCKS는 1960년대 한국학의 제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당시 남한, 미국, 소련, 일본, 대만을 잇는 연구자들의 가교이자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그 중요성과 영향력에 비해 현재까지 제대로 연구되거나 조명된 바가 없다. 1960~70년대 한국학을 냉전의 정치적 산물로서만 보는 시각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1960~70년대의 한국학의 수준과 경향을 현재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필연적으로 ‘시대착오’의 오류를 야기하고 당시의 맥락성을 사장시킨다. 또, 한국학 아카데미즘의 성장에 따라 같은 연구자라도 시기에 따라 인식관심과 평가가 새삼 달라질 수 있다.²³⁾ 한편, CEAI와 JCKS에 대한 주목이 부족한 데에는 이에 접근해갈 수 있는 자료상의 한계도 한몫했다. 본 연구는 CEAI와 JCKS의 활동을 보여주는 다량의 자료를 The Rockefeller Archive Center (이하, RAC)에서 발굴하여 활용한다.

3. 한국학의 출현: 동아시아 지평과 지식의 공생산

3.1. 아세아문제연구소(ARC)에 대한 록펠러재단의 지원

1960년대 국내의 한국학의 본산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ARC)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잘 알려진 바

23) 일제시대 공산주의운동사를 전공한 한 연구자는 스칼라피노·이정식의 책을 개정번역판(2015)으로 다시 접하게 되면서 느끼게 된 소회를 담담히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이 한국공산주의 운동사를 전체적으로 조감하는 시야를 가졌다는 점, 사료의 정밀한 활용이 독보적이었다는 점을 재평가하고 있다(최규진(2015), “반공주의로 그린 한국 좌파의 역사, 결함은 많지만...”, 프레시안, 2015.3.27.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125080?no=125080#ODKW>. 검색일: 2020.7.15).

와 같이, 1957년에 창설된 이 연구소는 1961년 2월에 포드재단에 (1) 구한국 외교문서 정리간행, (2) 한국의 사회과학적 연구, (3) 북한연구의 3대 연구과제를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1962년 8월에 \$285,000(3개년 과제)를 지원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바네트(A. D. Barnett),²⁴⁾ 베크만(G. Beckmann), 페어뱅크(J. K. Fairbank), 페이지(G. D. Paige) 등 아연과 관계를 맺었던 미국 학계 인사들의 협조가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도 잘 알려진 편이다. 1965년 “아세아에 있어서의 근대화문제”(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roblems of Modernization in Asia)는 고려대학교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학술회의로서 한국에서 열린 최초의 대규모 국제학술회의로 꼽힌다. 국내학자 36명, 대만, 일본, 인도, 홍콩, 호주, 미국, 영국에서 온 학자 39명 등 모두 75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고 성공리에 종료되었다. 미국의 아시아재단(The Asia Foundation)과 SSRC에서 외국학자들의 여비를 지원하였다. 이 회의 직후인 1965년 11월에는 포드재단으로부터 다시 \$180,000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²⁵⁾

그런데 ARC의 학술사적 함의를 추적하는 연구들(정문상(2014), 김성보(2018))은 연구소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 1962년과 1965년의 포드재단의 지원이 결정되는 과정에 관해 하나의 에피소드에 기대 추측해보는 데에 그친다. 이를테면, 김준엽의 회고록(『장정』)에 근거하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전략사무국(Office of Strategic

24) A. Doak. Barnett (1921~1999): 1921년 중국 상하이에서 출생했다. 1942~46년 간 미 해군에서 복무했다. 1959~61년 간 포드재단의 국제연구소 부책임자로 근무하면서, 1960년 9월에 ARC를 방문하여 연구계획을 문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콜롬비아대학 교수, Brookings Institution 연구원으로 일했다(United States. Congres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Subcommittee on Arms Control, International Law, and Organization (1970), ABM, MIRV, SALT and the nuclear arms race. Hearings, Ninety-first Congress, Second session, p. 584).

25)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2017), 『아연60년사』(제1권 역사편), 아연출판부, pp. 22-33.

Services, OSS)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중국학의 대가로 성장한 페어뱅크(John K. Fairbank)와, OSS 지도 하에 한반도 진공(進攻)을 준비했던 광복군 출신의 김준엽 간의 개인적인 인연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냉전기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학에서 한국학이 차지했던 위상과 필요를 경시하고, 학술 교류의 다각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가졌던 의미를 사상(捨象)시켜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ARC가 창립 초기에 록펠러재단(The Rockefeller Foundation)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다. 록펠러재단의 동아시아지역 인문학분야 책임자였던 찰스 파스(Charles B. Fahs)²⁶⁾는 ARC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섭외와 추천, ARC의 대외적 평판의 관리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인사이다.

(1958년) 4월에 한국에 갔을 때 사회과학도서관에서 John Harvey를 만났다. 하버드-옌칭 출신의 인물이라고 알고 있다. 그는 한국에 더 남아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듯했다. 고려대학에서 그를 임시로 고용하게 하여 영문저널(*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과 뉴스레터(*Bulletin*)를 편집하는 일을 맡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고려대학에 있는 Esson Gale 교수 역시 그런 인력의 필요성을 나에게 이야기한 바 있다. Ed. Wagner가 나에게 추천한 Carl Miller²⁷⁾를 서울에서 만났고, 또 그(와그녀)가 추천한 Glenn Paige(노스웨

26) Charles Burton Fahs (1908~1980): 1908년 뉴욕에서 출생했다. 노스웨스턴대학에서 정치학 학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졸업 이후 GEB (General Education Board)의 펠로십을 받아 일본연구에 매진했다. 교토제국대학(1934-5)과 도쿄제국대학(1935-6)에서 각각 1년을 연구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군사전략국 극동부(the Far Eastern Division of the Office of Military Strategic Services)에서 일했다. 1946년부터 1961년까지 록펠러재단의 인문학분야 담당자로 재직했다 ([https://rockfound.rockarch.org/biographical/-/asset_publisher/6ygcKECNI1nb/content/charles-fahs?](https://rockfound.rockarch.org/biographical/-/asset_publisher/6ygcKECNI1nb/content/charles-fahs?_), 검색일: 2020.8.6).

스텐대학)는 만나지 못했다.²⁸⁾

이 편지는 파스가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에게 보낸 것으로서, 여기에는 인물들 간 관계의 인상적인 정황이 담겨 있다. 파스는 1958년 4월에 아시아재단이 후원하는 사회과학도서관²⁹⁾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마침 동천(董天, 董德模) 관장이 없어서 대신 하비(John Harvey)에게 현황을 소개받은 적이 있었다. 파스는 당시 라이샤워에게 하비에 관한 정보를 체크해볼 참이었다.³⁰⁾ 파스가 하비를 만난 것은 비록 우연이기는 했지만, 그는 이미 그 전에 하버드엔칭연구소의 와그너(Edward W. Wagner)로부터 “아시아재단 스텝으로 있는 하비가 전도유망하다”는 평가를 들은 적이 있었다.³¹⁾ 마침 1958년에

27) Carl Ferris Miller (1921~2002): 1943년 미 해군에 입대한 그는 1945년 해방 직후 한국에 진주한 미군 선발대(민간정보검열대, Civil Censorship Intelligence Group)의 장교(중위)였다. 주한미군 총사령부(군정청), 한국은행에서 근무했다. 1960년대 초부터 ‘민병갈’이라는 한국이름을 사용했고 1979년에 한국인으로 귀화했다. 태안반도 천리포수목원을 만들어 운영했다. Miller에 관한 전기로는, 임준수(2012), 『나무야 미안해: 천리포수목원 일군 민병갈의 자연사랑』, 해누리가 있다.

28) Letter (Charles B. Fahs → Edwin O. Reischauer, 1958.6.16), Folder 12, Box 1, Series 613, FA 387, RG 1.2, Rockefeller Foundation records, RAC.

29) 사회과학도서관은 아시아재단의 후원으로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계성빌딩 3층에 자리잡아 1956년 6월 2일에 개관하였다(동천(1960), 『한국연구도서관 발전 3년사』, 『한국연구도서관통보』 제11호, p. 1). 1958년 10월에 한국연구도서관, 1962년 4월에 다시 한국연구원(<http://www.riks.or.kr/v5/index.php>)으로 재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정종현(2016), 『아시아재단의 “Korean Research Center (KRC)” 지원 연구』, 『한국학연구』 40집(2016.2), p. 70).

30) “Excerpt from: CBF’s to Japan and Korea” (1958.4.26), Folder 12, Box 1, Series 613, FA 387, RG 1.2, Rockefeller Foundation records, RAC. CBF는 Charles B. Fahs의 약칭이다.

31) “Excerpt from: CBF’s to Japan and Korea” (1958.4.23), Folder 12, Box 1, Series 613, FA 387, RG 1.2, Rockefeller Foundation records, RAC.

미국 국무성 프로그램으로 고려대 정치학과 방문교수로 와 있던 게일(Esson M. Gale)이 파스와 연락하면서 ARC에 ‘중국에 관한 지식을 가진, 잡지의 영문편집이 가능한 젊은 미국인 조교’가 필요하다는 언질을 주었고,³²⁾ 이때 사회과학도서관과의 계약이 종료되어 체류방법을 찾고 있었던 하비가 파스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다. 라이샤워는 회신을 통해 “하비가 와그너나 페이지(Glenn D. Paige)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ARC에 추천하는 것은 적극 찬성”이라는 의견을 보내왔다.³³⁾ 이러한 검토와 조회를 거친 이후에 파스는 고려대학의 유진오 총장에게 하비를 추천하는 편지를 썼고,³⁴⁾ 유진오는 하비를 직접 만나 면담한 후 ARC 채용의사를 밝혔다. 물론 아시아재단이 그동안 하비에게 지급했던 금액분(연간 \$6,000)을 록펠러재단이 계속 지원한다는 조건에서였다.³⁵⁾ 하비는 록펠러재단의 지원으로 ARC에서 2개년 간(1958년 9월~1960년 9월) 영문에디터로 활동했다.³⁶⁾

하비는 첫 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1959년 8월)에 파스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버드엔칭위원회에서 ARC에 서지정리 프로젝트를 위

32) “Excerpt from: CBF’s Diary” (1958.4.26), Folder 12, Box 1, Series 613, FA 387, RG 1.2, Rockefeller Foundation records, RAC. 참고로, 이 서류에는 Esson M. Gale이 ARC에 대해 파스에게 보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주제가 한국, 중국, 동북아시아로 너무 넓고 포괄적이라고 언급했다.

33) Letter (Edwin O. Reischauer → Charles B. Fahs, 1958.6.18), Folder 12, Box 1, Series 613, FA 387, RG 1.2, Rockefeller Foundation records, RAC. (*Edwin O. Reischauer: 하버드엔칭연구소). 참고로, 라이샤워와 와그너, 파스는 페이지(Glenn D. Paige)에 대해 공통적으로 언어능력(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한국어)이 뛰어나고 학구열이 강해서 한국학분야에서 전도유망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34) Letter (Charles B. Fahs → Chin-O Yu, 1958.8.11), Folder 12, Box 1, Series 613, FA 387, RG 1.2, Rockefeller Foundation records, RAC.

35) Letter (Chin-O Yu, → Charles B. Fahs, 1958.8.28), Folder 12, Box 1, Series 613, FA 387, RG 1.2, Rockefeller Foundation records, RAC.

36) “GA HUM 5967” (Approved 1959.10.8), Folder 12, Box 1, Series 613, FA 387, RG 1.2, Rockefeller Foundation records, RAC.

탁했다는 점, 연구소의 주된 수입은 저널과 뉴스레터의 판매에서 얻어지고 있다는 점, ARC의 강점은 극동(Far East)을 연구하는 학자들 간의 정보교류에 있다는 점, 특히 *Bulletin*에 실어온 한국관련 서지들을 정리하여 책으로 펴내는 작업이 주효할 것이라는 점, 민병기에 이어 실무를 담당하는 김용권의 영어실력과 업무능력이 뛰어나 연구소전임교수로 위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점, 김준엽이 하버드옌칭연구소에서의 1년 간 연수를 마치고 조만간 복귀할 예정이라는 점, 한국에 들어와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는 이로서는 Dr. Reidenbach (워싱턴 대학, 고려대학에서 근무)와 Dr. Fred Lukoff (펜실베이니아대학, 연세대학에서 아시아재단 연구비로 2년 간 언어학 교수)를 들 수 있다는 점 등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모두 적고 있다.³⁷⁾ 파스는 하비에게 답신을 보내면서 ARC에 한국 이외의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까지 연구할 역량이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하비는 ARC가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에 대해서는 연구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남아시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다. 그는 ARC가 연구역량에서 비록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이 동아시아 국가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 왔기 때문에 한국의 학자들이야말로 연구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다.³⁸⁾ 그리고 ARC가 조만간 북한에 대한 연구를 출범하려 한다는 소식도 전했다. 북한 및 공산권 연구에 ARC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파스 역시 파악하고 있었다. 유진오는 파스에게 보낸 편지³⁹⁾에서, 1959년 7월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에서 개최된 The Soviet-Asian Relations Conference에 ARC의 조기준, 김준엽(귀국일

37) Letter (John Harvey → Charles B. Fahs, 1959.8.26), Folder 12, Box 1, Series 613, FA 387, RG 1.2, Rockefeller Foundation records, RAC.

38) Letter (John T. Harvey → Charles B. Fahs, 1959.9.15), Folder 12, Box 1, Series 613, FA 387, RG 1.2, Rockefeller Foundation records, RAC.

39) Letter (Chin-O Yu → Charles B. Fahs, 1959.9.23), Folder 12, Box 1, Series 613, FA 387, RG 1.2, Rockefeller Foundation records, RAC.

정에 포함)이 참석했다는 점을 전하면서 ARC가 장차 북한, 공산중국, 소비에트블록에 대한 연구를 기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파스는 Paige와 함께 그 학술대회 자리에 있었다. 또, 조기준과도 이미 접촉한 바 있었다.

하비의 후임으로 ARC의 영문잡지 에디팅을 맡은 것은 헨슨(William E. Henthorn)이었다. 헨슨은 예일대학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했고, 부산에서 1년 간 한국사를 공부하고 서울에서는 하비가 있었던 사회과학도서관의 후신인 한국연구원(the Korean Research Center)에서 근무했다. 주한 미 공군에서 복무하기도 했던 그는 메릴랜드대학 프로그램으로 미 육군을 대상으로 일본어를 가르치기도 했고, 왕립아시아 학회 한국지부(Royal Asiatic Society Korea, RASK)에서 펴내는 *Transactions*에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⁴⁰⁾ 그는 1960년 9월부터 1961년 9월까지 ARC에서 근무하면서,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Bulletin of the Asiatic Research Center*, *Bibliography of Korean Studies*를 편집하는 일을 맡았다. 헨슨은 ARC에 있으면서 연구소에 소장된 고려사 자료를 정리했고,⁴¹⁾ 이후 이를 토대로 라이덴대학에서 “Korea: The Mongol Invasions” (1963)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프린스턴대학과 하와이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게 된다. 오늘날 헨슨은 하와이대학에서 한국학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SSRC와 AAS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의 한국학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인물로 기

40) Interviews: Charles B. Fahs (about William E. Henthorn, 1959.11.25), Folder 12, Box 1, Series 613, FA 387, RG 1.2, Rockefeller Foundation records, RAC. *Transactions*에 게재한 논문으로는 William E. Henthorn (1959), Some Notes on Koryŏ Military Units, *Transactions* XXXV, pp. 67-75; William E. Henthorn (1961), Some Notes on Parhae (P’ohai), *Transactions* XXXVII, pp. 65-81이 있다.

41) “Final Report of William E. Henthorn at the Asiatic Research Center of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1961.9.1), Folder 13, Box 1, Series 613, FA 387, RG 1.2, Rockefeller Foundation records, RAC.

억되고 있다.⁴²⁾

3.2. 아세아문제연구소(ARC)와 아시아학술기관교류위원회(CEAI)

포드재단은 1962년에 ARC에 거액의 연구비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SSRC 산하의 CEAI에 ARC와의 학술교류를 위한 기금을 제공했다. CEAI는 포드재단의 지원으로 일본의 도요분고(東洋文庫), 대만의 Academia Sinica 근대사연구소에 미국학자방문프로그램(a visiting American scholars program)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대상에 ARC도 포함될 것이다.⁴³⁾ CEAI가 가장 먼저 진행한 일은 하버드엔칭연구소의 와그너를 한국학 자금관리를 위한 전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다.⁴⁴⁾ 아시아의 각 연구기관에 파견될 미국인 학자는 CEAI에서 선정하였다. 이 위원회의 구성원은 1962년 11월 현재 John K. Fairbank (하버드대학, 의장), George E. Taylor (워싱턴대학), Mary C. Wright (예일대학), C. Martin Wilbur (콜롬비아대학), Edward W. Wagner (하버드대학)였다.⁴⁵⁾ CEAI는 동아시아의 각 연구소에서 미국으로 파견되는 연구진

42) <https://ckslib.manoa.hawaii.edu/archives-and-manuscripts-collections/william-e-henthorn-collection/>(검색일: 2020.8.6).

43) SSRC/CEAI에서 관리하는 도요분고와 아카데미아 시니카 파견 프로그램에 \$165,000, ARC 파견 프로그램에 \$45,000이 책정되었다. 미국으로 파견된 한국인 학자들의 수당으로는 \$18,000가 책정되었다. Letter (Ford Foundation → Paul Webbink, 1963.7.23), Folder 1822, RG 2, Accession 2, Box 162, SSRC records (FA 021), RAC. (*Paul Webbink: SSRC 부의장).

44) Letter (Pendleton Herring → Edward W. Wagner, 1962.9.19); Letter (Bryce Wood → John K. Fairbank, 1962.9.25), Folder 1822, RG 2, Accession 2, Box 162, SSRC records (FA 021), RAC. (* Pendleton Herring: SSRC President; Bryce Wood: SSRC Staff).

45) Letter (Bryce Wood → Scholars in Asian Studies, 1962.11.29), Folder 1822, Box 162, RG 2, Accession 2, SSRC records (FA 021), RAC.

의 재정대리역할도 함께 담당했다.⁴⁶⁾ 단, 당시 CEAI의 주된 목적은 중국연구의 강화에 있었고,⁴⁷⁾ 한국학은 대단히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1962년 11월 29일에 CEAI의 Bryce Wood(staff)는 미국 내의 약 20명의 아시아학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펠로십프로그램을 안내했다. 주로 역사학자들이 중심이었고 중국학과 일본학 연구자들에 편중되었다. 이에 대한 회신은 5명으로부터 도착했다. 이 가운데 ARC와 관계가 될 수 있는 이는 2명이었다. 하버드대학 동아시아연구소의 Mark Mancall(역사학)은 “19~20세기 중러관계”를 연구주제로 설정하고 타이페이와 도쿄를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CEAI는 그에게 ARC 방문을 권고했다. James W. Morley(콜롬비아대학 동아시아연구소, 법학)는 “20세기 중일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도쿄, 서울, 타이페이를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⁴⁸⁾ CEAI는 주요연구주제를 중국, 일본으로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ARC에 방문하는 이들도 한국학을 전공주제로 삼은 이들은 없었고, 연구일정도 도쿄나 대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약 4주 가량 ARC를 방문하여 잠시 ARC의 연구프로젝트를 돕는다는 정도였다. 이것은 미국 학자들이 장기간 체재하면서 방법론적 자문을 해줄 것을 기대한 ARC의 입장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는데, CEAI는 ARC에 “이들은 미국으로 돌아가 미국 학계에 *Korean Studies*를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의미 있는 출발로 받아들이면 좋겠

46) Letter (Pendleton Herring → Chin-O Yu, 1962.10.3), Folder 1819, Box 162, RG 2, Accession 2, SSRC records (FA 021), RAC. (*Chin-O Yu: Chungang Educational Foundation 이사 (고려대학교)).

47) Letter (Bryce Wood → Thomas A. Sebeok, 1962.11.5), Folder 1822, Box 162, RG 2, Accession 2, SSRC records (FA 021), RAC. (*Thomas A. Sebeok: Program in Uralic and Altaic Studies, Rayl House).

48)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memorandum (1963.1.2),” Folder 1822, Box 162, RG 2, Accession 2, SSRC records (FA 021), RAC.

다”고 권고했다.⁴⁹⁾ 다만, Mancall은 도쿄와 대만을 방문한 뒤 ARC를 방문하지 않고 미국으로 귀환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와그너는 1963년 3월에 서울에 체재하면서 ARC의 상황을 점검하여 SSRC에 보고했다. 그는 ARC 방문이 확정된 몰리(Morley)와 함께, 페이지, 팔레(James Palais)를 추가로 추천했다. 팔레의 경우, 연구주제가 “1875~1885년 사이의 한국정치사(‘중국의 개입’)”로서 한국의 사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페어뱅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와그너는 ARC에서의 연구가 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⁵⁰⁾ CEAI는 이 파견프로그램이 다년도 사업이었던 만큼 선정인원을 미리 확정했다. 다음은 그 명단이다.

Toyo Bunko, JAPAN (총 \$80,750)

- 1962~1963: Feuerwerker (\$1,250), Biggerstaff (\$500)
- 1963~1964: Mancall (\$3,000)
- 1964~1965: Iriye (\$3,000), Spector (\$7,500), Swisher (\$3,750)
- 1965~1966: Morley (\$14,000), Schwartz (\$3,750)
- 1966~1967: Jansen (\$15,000), Scalapino (\$14,000)
- 1967~1968: -
- 1968~1969: Treadgold (\$15,000)

Institute of Modern History, TAIWAN (총 \$30,205)

- 1962~1963: Feuerwerker (\$1,250), Biggerstaff (\$500)
- 1963~1964: Mancall (\$3,000)
- 1964~1965: Iriye (\$3,000), Crawford (\$7,500), Swisher (\$3,750)
- 1965~1966: Walker (\$7,500), Schwartz (\$3,750)

49) Letter (Bryce Wood → Chin-O Yu, 1963.2.13), Folder 1819, Box 162, RG 2, Accession 2, SSRC records (FA 021), RAC.

50) Report (Edward Wagner → Bryce Wood, 1963.3.31), Folder 1822, Box 162, RG 2, Accession 2, SSRC records (FA 021), RAC.

Asiatic Research Center, SOUTH KOREA (총 \$7,000)

1963~1964: Mancall (\$1,000)

1964~1965: Paige (\$4,000)

1965~1966: Morley (\$1,000)

1966~1967: Scalapino (\$1,000)⁵¹⁾

전체적으로 ARC의 방문을 희망하는 학자의 수는 다른 기관들에 비해 현저히 적었고, 투여된 연구비를 통해 볼 때 일본과 대만과 비교하여 한국에서는 단기간 체재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다만, 페이지와 스칼라피노처럼 ARC와의 교류를 계기로 한국학의 핵심에 접근해 들어가는 인물들이 생겨났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3.3. 아세아문제연구소(ARC)의 ‘근대화회의’(1965년)와 숨겨진 네트워크

SSRC/CEAI의 인적 네트워크가 최초로 가시화된 것은 1965년의 ‘근대화회의’에서였다. 여기에는 페어뱅크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근대화회의’(1965)에 다수의 미국 및 서구의 학자들과 아시아 학자들이 참가하게 된 계기를 유진오, 이상은, 김준엽 등 ARC 중심인물들의 역할로 설명하거나(『아연60년사』), 아시아재단의 이사장 스타인버크(David I. Steinberg)의 기여로 추론하는 논의⁵²⁾가 있었지만, RAC에 소장된 자료들은 이와는 조금 다른 사실을 지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인 학자들의 방한경위와 관련해서 그러하다.

51) “Minutes: Informal Report on Existing Commitments for Appointments (1963.6.17)”, Folder 1822, Box 162, RG 2, Accession 2, SSRC records (FA 021), RAC.

52) 김인수(2017), 「한국의 초기 사회학과 ‘아연회의’(1965)」, 『사이넵SAI』 제22호, p. 41. 스타인버크의 아시아재단은 아시아로부터 참석하는 학자들의 연락업무와 경비지원을 맡았다.

페어뱅크는 1964년 5월 초에 ARC를 방문하여 이상은 소장 등 ARC 실무진과 총 7차례의 회의(식사를 겸함)를 진행하였다. ARC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의 연구자들과도 별도로 만나 여러 주제를 토론하였다. 아시아재단 이사장인 스타인버크와도 여러 차례 회합하였다. 페어뱅크는 애초 ARC가 포드재단에 연구계획으로 제출한 3가지 주제 가운데 김준엽이 주도하는 ‘북한연구’에 높은 평가를 내렸는데, 북한에서 나온 문헌을 직접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도유망한 연구로 보았다. 페어뱅크는 이상은 소장이 인물의 섭외에 구애나 제한이 없이 다방면으로 능력 있는 인사들을 규합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 같이 기관들이 고립적이고 서로 경쟁적인 곳에서 이것은 중요한 성취라고 보았다. 페어뱅크는 ‘근대화회의’에 참여할 미국 학자들을 어떻게 초청할 것인지에 관해 이상은 소장에게 적극적으로 조언했다. 이후, 그는 미국 학자들의 초청경비(약 \$10,000)를 CEAI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CEAI 위원들에게 제안했다.⁵³⁾ 그리고 이 제안에 대해 경비를 \$20,000로 늘리라는 요청까지 있을 정도로 위원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이외에도 페어뱅크는 회의 기획 단계에서 미국 학자의 섭외가 저조한 섹션에 대해 추가 섭외를 진행해달라는 이상은 소장의 요청을 받아,⁵⁴⁾ 일본학 전문인 프린스턴대학의 마리우스 쟈슨(Marius Jansen), 『소용돌이의 한국정치』(*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1968)의 저자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을 추천하였다.⁵⁵⁾ ‘근대화회의’(1965)에

53) Letter (John K. Fairbank → Bryce Wood, 1964.5.12), Folder 1820, Box 162, RG 2, Accession 2, SSRC records (FA 021), RAC.

54) Letter (Sang-eun Lee → Bryce Wood, 1964.10.10), Folder 1819, Box 162, RG 2, Accession 2, SSRC records (FA 021), RAC.

55) Letter (John K., Fairbank → Committee on Exchanges with Asian Institutions: G. Taylor, E. Wagner, M. Wright, Bryce Wood, 1965.5.19), Folder 1820, Box 162, RG 2, Accession 2, SSRC records (FA 021), RAC.

참가한 미국 학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Stuart C. Dodd (워싱턴대학, 사회학)
Gregory Henderson (하버드대학)
William E. Henthorn (인디애나대학)*
W. R. Hoskins (인디애나대학)
Marius Jansen (프린스턴대학)
Marion J. Levy Jr. (프린스턴대학, 사회학)
James W. Morley (콜롬비아대학,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Glenn D. Paige (프린스턴대학, 정치학)*
Herbert Passin (콜롬비아대학, 사회학)
Lucian W. Pye (MIT, 정치학)
Fred W. Riggs (인디애나대학, 행정학)
Robert A. Scalapino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정치학)*
Gregory E. Taylor (워싱턴대학, 극동 및 러시아연구소 소장)*
Felix Moos (캔자스대학)

이 가운데 ‘*’는 CEAI의 ARC 파견프로그램과 직접 관계를 가진 인물들이다. 다른 인물들도 일부(예를 들면, Henderson, Passin, Moos 등)는 한국학 영역에서 업적을 내고 있다. 참고로, 1966년에는 이정식이 ARC에 체재하면서 정치인 구술작업을 진행했다. 그는 CEAI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1,500을 지급받게 되는데,⁵⁶⁾ 이 연구를 통해 모은 자료를 스칼라피노와 공저한 *Communism in Korea* (1972)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⁵⁷⁾

56) Letter (Bryce Wood → Chong-Sik Lee, 1966.10.19), Folder 1824, Box 162, RG 2, Accession 2, SSRC records (FA 021), RAC. (*당시 이정식은 서울 체류 중).

57) 이정식은 1966~7년, 1969~70년의 두 차례 한국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는 좌익운동에 참여했거나 당시 북한에서 갓 내려온 인물들을 면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체험에 기초한 귀중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

4. 한국학의 자립: 자료(Materials)와 전문학술(Academism)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JCKS(SSRC+ACLS)는 포드재단의 지원(\$65,000. 1967년 7월 1일~1970년 6월 30일)에 힘입어 1967년 6월에 결성되었다. 한국학의 발전을 위해 국가적 수준에서 요청되는 업무를 수행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학자 개인에 대한 지원은 사업에서 제외되었고, 세미나와 워크숍, 학술회의, 출판, 대학 간 교류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CEAI가 페어뱅크의 주도로 중국학을 매개로 하여 동아시아의 각 연구기관들을 연결한 것인 데에 비해, JCKS의 출범은 말그대로 한국학이 미국의 지역학 연구에서 시민권을 부여받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위원들은 Edward W. Wagner (하버드엔칭연구소, 의장), George M. Beckmann (클레어몬트 대학원),⁵⁸⁾ Gari K. Ledyard (콜롬비아대학), Chong-Sik Lee (펜실베이니아대학), Glenn D. Paige (프린스턴대학)⁵⁹⁾으로 구성되었는데, 와그너, 이정식,

바 있다(로버트 스칼라피노, 이정식 공저(2015), 한홍구 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 돌베개, p. 15).

58) George M. Beckmann (1926~1998): 1926년 뉴욕에서 태어났다. 1952년에 스탠포드대학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폴브라이트 펠로십으로 1952~3년과 1960~1년에 두 차례 일본에서 연구했다. 포드재단의 Program associate로 1961~4년에 근무했다. 캔자스대학 역사학과(1951~67), Claremont Graduate School (1967~9), 워싱턴대학 Far Eastern and Russian Institute 소장(1969~71)과 문리대학장(1971~8)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작으로 *Japanese Communist Party, 1922~1945*; *Modernization of China and Japan* 등이 있다(https://prabook.com/web/george_m.beckmann/807273, 검색일: 2020.8.6).

59) Glenn D. Paige (1929~2017): 1929년 메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났다. 1948~52년 간 미 육군에서 복무했고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1959년에 노스웨스턴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1959~61), 프린스턴대학(1961~7), 하와이대학(1967~92)에서 가르쳤다. 1994년에 비폭력센터(the Center for Global Nonkilling, www.nonkilling.org)를 창설하고 소장으로 취임했다. 주요 작품으로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1968), *Nonkilling Global Political Science* (2002, *3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됨) 등이 있다(<https://obits.staradvertiser.com/2017/>

페이지는 이미 ARC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연구를 진행해온 인물들이 었다.⁶⁰⁾

JCKS의 지원으로 개최된 최초의 학술회의는 “Conference on Library Resources on Korea” (1967년 11월 10~11일, University of Washington) 였다. 이 학술회의는 한국학이 미국에서는 약 15년 정도 된 신생학문에 속하기 때문에 전문학술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자료(materials)의 활발한 수집/교환과 정전화(canonization)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⁶¹⁾

학술회의를 조직하기 위해 와그너는 먼저 미국 주요대학의 한국학 사서들의 명단(1966년 기준)을 JCKS에 회람했다.⁶²⁾

Yong-Kyu Choo,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동아시아도서관

Sungha Kim, 하버드엔칭도서관

Key. P. Yang, 미국 의회도서관

Soowon Y. Kim, 프린스턴대학 극동컬렉션(일본/한국)

Joo-bong Kim, 콜롬비아대학

Mrs. Kanghee Lee (Lukoff 교수에게 섭외 부탁), 워싱턴대학

02/05/glenn-durland-paige-professor-emeritus/, 검색일: 2020.8.6).

60) 같은 시기 AAS의 한국학위원회(Korean Studies Committee)의 구성원은 Hesung C. Koh (Chairman, HRAF), Soon-Sung Cho (University of Nebraska), William Henthorn (Princeton University), Han-Kyo Kim (University of Cincinnati), Fred Lukoff (University of Washington), Glenn Paige (University of Hawaii), Edward Wagner (Harvard University)였다(Charles O. Hucker (*AAS Secretary, 1966~8),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Inc., at the Age of Twenty: Annual Report for 1967~1968”,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28(1) (Nov., 1968), p. 240).

61) “Conference on Library Resources on Korea (1967.11.10~11, University of Washington. JCKS), p. 1”, Folder 2776, Box 237A, RG 2, Accession 2, Series 1, SSRC records (FA021), RAC.

62) Letter (Edward W. Wagner → Bryce Wood, 1967.8.7), Folder 2776, Box 237A, RG 2, Accession 2, Series 1, SSRC records (FA021), RAC.

Chi-Ping Chen(중국/한국), 하와이대학
Joyce Wright, 하와이대학 East-West Center
Dr. Hesung Chun Koh, AAS Committee on Korean Studies(Human
Relations Area Files. 이하, HRAF)

SSRC 스텝으로서 JCKS의 업무를 주관했던 Bryce Wood는 와그너의 편지를 받고서 그간 포드재단의 연구비를 수령한 바 있는 사서들과 한국학 연구자들까지 포함하여 약 20명의 인물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이들은 미국의 한국학을 주도한 인물들로 간주할 수 있다. 이들의 명단과 소속은 다음과 같다.⁶³⁾

Geogre M. Beckmann, 클레어몬트 대학원
Frederick Burkhardt,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Yong-kyo Choo,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Robert H. Edward, 포드재단
Joobong Kim, 콜롬비아대학
Mrs. Soowon Y. Kim, 프린스턴대학
Sungha Kim, 하버드엔칭도서관
Byung Ik Koh, 워싱턴대학
Dr. Hesung C. Koh, 예일대학
Gari K. Ledyard, 콜롬비아대학
Chong-Sik Lee, 펜실베이니아대학
Fred Lukoff, 워싱턴대학
Glenn D. Paige, 하와이대학
Michael C. Rogers,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Doo Soo Suh, 워싱턴대학
George E. Taylor, 워싱턴대학

63) Letter (Bryce Wood → 다수 수신자, 1967.8.16), Folder 2776, Box 237A, RG 2, Accession 2, Series 1, SSRC records (FA021), RAC. (*Bryce Wood: JCKS Staff).

Edward W. Wagner, 하버드엔지니어링연구소

Hellmut Wilhelm, 워싱턴대학

Key P. Yang, 의회도서관(LOC)⁶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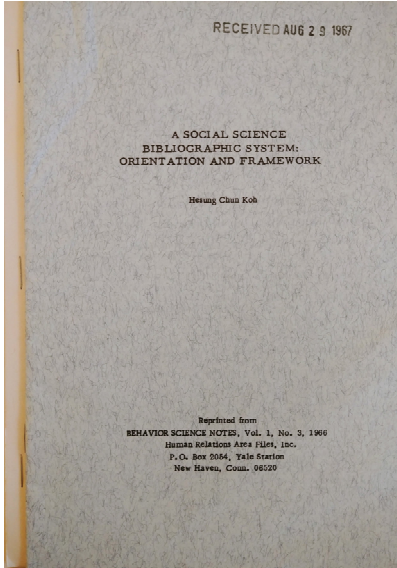
이 편지에 대해 가장 먼저 응답을 해온 것은 HRAF의 고(전)혜성⁶⁵⁾이었다.⁶⁶⁾ 그녀는 학술회의를 통해 한국학의 포괄적인 서지를 완성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서들 간의 공동작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신이 집필한 논문을 편지에 동봉하기도 했다(그림 1).

그녀는 한국학,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 서지체계(bibliographic system)를 정리하여 인용체계를 범용화하면 연구를 심화시켜가는 데에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직접 서지의 코딩표를 작성하여 제안하기도 했다(그림 2).

64) 이 가운데 일부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명단에는 없지만 추가로 참석한 이는, Jaehyun Byon (워싱턴대학), John Jamieson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Ruth Krader (워싱턴대학), S. E. Solberg (워싱턴대학), Kyu S. Kim (롱아일랜드대학), San-Oak Kim (캘리포니아대학, LA), Joyce Wright (하와이대학 East-West Center)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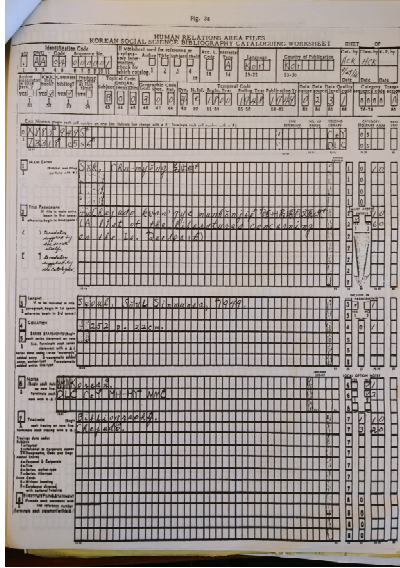
65) 고(전)혜성(1929~): 1929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영문과 2학년 재학 중 미국으로 유학했다. Dickinson College 에서 경제학과 사회학을 전공하였다. Yale Law School, Yale University, Boston University에서 강의했고, 예일대학 비교문화연구소 HRAF의 연구부장으로 재직했다. 한국문화를 비교문화 연구에 포함되도록 1960년대에 한자, 한글, 가나 등 비로마자를 컴퓨터 코드화하며 사회과학 이론을 적용한 비교문화 정보체계를 개발하였다. 1952년 남편 고희광 박사와 Korea Institute (한국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 연구소는 현재의 동암문화연구소(East-Rock Institute)로 이어졌다. 미국 코네티컷 주지사상(2003)과 대한민국 국민훈장 석류장(2007) 등을 수여하였다(<http://eastrockinstitute.org/about/founders/>, 검색일: 2020.7.1).

66) Letter (Hesung Chun Koh → Bryce Wood, 1967.8.28), Folder 2776, Box 237A, RG 2, Accession 2, Series 1, SSRC records (FA021), RAC. (*Hesung Chun Koh, Human Relations Area Files, Korea 프로젝트 책임자).



[그림 1] “A Social Science Bibliographic System: Orientation and Framework” (Hesung Chun Koh (1966), Behavior Science Notes, Vol.1, No.3)

*출처: RAC.



[그림 2] Hesung Chun Koh가 고안해낸 “Korean Social Science Bibliography Cataloguing Worksheet”, 석주명(1949), 『제주도 관계문헌집』, 서울: 서울신문사에 대한 서지정리의 예.

*출처: RAC.

고(전)혜성은 1967년 8월에 열린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Orientalists' Meeting에서 ARC의 이상은 소장자를 만난 적이 있었으며, 이상은 역시 자신이 제기한 의제의 취지에 공감했다는 기억을 되살려 새삼 이를 다시 알렸다.⁶⁷⁾

다음으로 회신해온 이는 양기백⁶⁸⁾이었다.⁶⁹⁾ 그는 미국 내의 다른 아

67) Letter (Hesung C. Koh → Bryce Wood, 1967.9.22), Folder 2776, Box 237A, RG 2, Accession 2, Series 1, SSRC records (FA021), RAC.

시아학과 달리 Korea Collection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다고 평가하고, 학술회의에서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1. 각 도서관을 영역별로 특화(역사학, 지리학, 문학과 언어, 교과서 등)하는 문제와 사서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문제.
2. 수집 자료의 가치, 고유성의 문제.
3. 맥쿤-라이샤워체계(McCune-Reischauer system)를 한국학에 맞게 개선하는 시도가 필요한지의 여부.
4. 저자들에게 참고문헌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지의 여부.
5. 참조체계의 미비로 인한 연구자의 독점구조를 해소하는 방법.
6. 사서들 간 교류의 필요성. 아시아학 뉴스레터를 한국학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

하버드엔칭연구소에서 일하는 김성하⁷⁰⁾도 학술회의의 의제를 제안

68) 양기백(梁基伯, 1919~2015): 1949년에 국비장학생으로 도미(渡美)하였다. 1950년 미국 의회도서관 한국문헌과(한국과) 직원 모집에서 공채 1호로 채용돼 이후 한국과장(1950~94), 아시아부장(1994~5) 등을 지내면서 46년 6개월간 한국 전문가로 근무했다. 이 기간 중 한국 관련 자료를 270권에서 12만5,000권으로 늘리는 데 앞장섰다. 퇴임 이후 주미 한국대사관 한미외교사료실 고문으로 일하며, ‘미 의회 의사록 한국관계 기록 요약집’ 등을 펴냈다. 양기백 박사의 초기 경력은 해방 후 미 군정청 관재과장(1945~6)을 시작으로 경기도청 행정과장(1947~8)과 공보과장(1948~9)을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 신문기사는 김일성의 진위 여부로 한국 현대사학계가 시끄러울 때 미 의회도서관 차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사정상 무산됨), 이때 양기백 박사가 발표를 위해 준비했던 자료가 김일성 연구자 및 한국 공산주의운동사 연구자에게 값지게 활용된 바 있다고 전했다(정운현, “在美 ‘한국학 대가’ 故 양기백 박사의 삶과 업적”, <진실의길>, 2015.2.14).

69) Letter (Key P. Yang → Bryce Wood, 1967.9.7), Folder 2776, Box 237A, RG 2, Accession 2, Series 1, SSRC records (FA021), RAC. (*Key P. Yang: 양기백).

70) 김성하(1924~1989): 1924년에 평양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에서 불문학을 전공(1948~1950)했으나, 한국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미 해병대의 통역관으로 근무했다. 1952년에 한국을 떠나 보스턴대학에 입학했다. 서던캘리포니아대학

하였다.⁷¹⁾ (1) 한국의 고전, 신문, 주요잡지에 대한 마이크로필름화 작업의 필요성, (2) 북한출판물의 수집방법(직접 교섭하여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홍콩이나 일본을 통해 구해보는 것이 좋은 방안), (3) 사서들이 한국학 자료(Korean materials)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획득하는 방법의 모색(정기적인 리스트 작성과 업데이트) 등이 그것이다.

콜롬비아대학의 한국학 사서인 김주봉의 견해도 비슷했다.⁷²⁾ 그는 (1) 북한 출판물을 얻을 수 있는 채널의 확보, (2) 미국 대학 내의 Korean Libraries 간의 상호복사서비스, (3) 한국의 도서관들로부터 마이크로필름을 확보하는 문제(자료의 마이크로필름화), (4) 한국 신문의 마이크로필름화, (5) 한국의 도서관, 학계, 정부기구와 교섭하여 정기간행물을 확보하는 문제 등을 제안했다.

1967년 11월의 학술회의는 와그너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양기백(미국 의회도서관)과 Ruth Krader(워싱턴대학 동양도서관장)의 발표순으로 진행되었다. 사전에 편지를 통해 제안된 바와 같이, 발표는 북한자료의 확보방법⁷³⁾과 의회도서관에 소장된 북한자료 목록⁷⁴⁾에 초

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하버드옌칭도서관 사서로 임용되어 근무했다. 주요 작품으로 하버드옌칭도서관 소장 한국학 자료를 정리한 *Classified Catalogue of Korean Books* (Vol. 1-3. 1962~1980 간행)가 있다(<http://www.bu.edu/cgcm/research/korean-diaspora-project/individuals/sungha-kim-and-the-korean-collection-of-the-harvard-yenching-library/>, 검색일: 2020.7.1).

71) Letter (Sungha Kim → Bryce Wood, 1967.9.11), Folder 2776, Box 237A, RG 2, Accession 2, Series 1, SSRC records (FA021), RAC. (*Sungha Kim: 하버드옌칭도서관 Korean Cataloger).

72) Letter (Joobong Kim → Bryce Wood, 1967.9.12), Folder 2776, Box 237A, RG 2, Accession 2, Series 1, SSRC records (FA021), RAC.

73) 당시 북한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공급원은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었다. 홍콩(Chiao Liu, Great Eastern Book, Apollo), 도쿄(Kyokuto Shoten, Daian, Japan Publishing Trade Co.), 오사카(Am Kil-bo), 독일(Kubon und Sagner).

74) 양기백이 준비해온 목록으로서 북한의 과학원 잡지와 무역협회 기관지(*Korean Trade*)가 이목을 끌었다.

점이 모아졌고, 한국의 출판물을 마이크로필름화하는 작업의 진행과정(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일본(국회도서관, 동양문고, Yushodo)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이크로필름화 작업 등이 소개되었다. 또, 자료의 목록화와 분류시스템의 도입, 특히 한글제목을 영어로 바꾸는 데에 필요한 기본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논의되었고, 고(전)혜성의 서지분류 시스템을 한국문헌 일반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⁷⁵⁾

이러한 학술회의의 의제와 진행내용은 한국에도 곧바로 소개되었다. 하버드옌칭도서관의 김성하는 한 언론기사를 통해 회의에서의 결정내용을 소개했다: (1) 소수의 인원으로 편성된 소위원회를 JCKS 산하에 둘 것, (2) AAS에 속해 있는 동양도서관위원회(Committee on East Asian Libraries, 이하 CEAL)에 한국 관계 사업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 (3) 한국도서관협회를 통해 한국 내의 문헌을 확보할 것, (4) 예일대학에서 한국사회과학 관계문헌을 자동화하여 정리하고 있는 고(전)혜성의 안을 참조하여 각국 도서관이 보유한 도서카드를 분류, 목록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⁷⁶⁾ 이러한 논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JCKS 산하에 자료 소위원회(Subcommittee on Materials)가 조직되었고, AAS 산하의 CEAL (Committee on East Asian Libraries)에 일본학과 중국학처럼 한국자료소위원회(Subcommittee on Korean Materials)가 설치되었다. JCKS 산하의 소위원회의 위원은 Ruth Krader (위원장), 고(전)혜성(예일대학), Joyce Wright (하와이대학), 김성하(하버드대학), Edward Wagner, John Jamieson (캘리포니아대학_버클리), 양기백(의회도서관)으로 구성되었다.⁷⁷⁾

75) "Conference on Library Resources on Korea (1967.11.10~11, University of Washington. JCKS)," Folder 2776, Box 237A, RG 2, Accession 2, Series 1, SSRC records (FA021), RAC.

76) 김성하, "미국의 한국학 연구", 동아일보(1967.12.7).

JCKS에서 후원한 최초의 학술회의가 미국 내 대학, 기관의 도서관 사서들의 발표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학 자료의 수집과 정리, 서지체계와 목록화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사서와 연구자들 안에서 공유되었고, JCKS 내의 소위원회를 통해 한국학 자료의 통합관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 AAS 등 미국의 아시아학을 주도하는 연구조직에서 한국학의 지분을 확보했다. 당시 한국에서 개최된 ‘한국학의 문제점’ 학술회의(1968)에서 ‘학’(Science)이자 전문 학술(academism)로서의 한국학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미국의 한국학의 의제가 동조화(coupling)되고 있었던 현상이 목격되어 자못 흥미롭다. 미국 내에서 한국학이 중국학과 일본학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내딛었던 첫 발걸음이 이렇듯 자료의 확충으로 시작했다는 점도 꼭 인상적이다.⁷⁸⁾ 참고로, 양기백(미국 의회도서관)은 김준엽에게 『思想月報』, 『思想彙報』의 서지현황과 마이크로필름 자료의 확보방법에 관해 직접 조언하기도 했다.⁷⁹⁾

77) 양기백(1968), 「미국내 한국학 도서관계의 최근 동향」,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문화』 9(2), p. 2.

78) JCKS의 지원으로 개최된 학술회의는 다음과 같다.

1967, Conference on Library Resources on Korea.

1969, Conference on Tradition and Change in Korea.

1975~8, Columbia University Seminar on Korea.

1976, Conference on Comparative Development of North and South Korea.

1977, Conference on the First Korea-Japan Intellectual Exchange.

1977, Conference on Power and Development in Contemporary Korea.

1977, Multi-Disciplinary Conference on South Korean Industrialization.

1978, Regional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1980, Conference on Korean Religion and Society.

1980, Conference on Religion and Ritual in Korean Society.

1981, Conference on the Colonial Period in Korea.

연도미상, Conference on Factors in South Korean Industrialization.

1985, Workshop on Korean Buddhism.

1988, Conference on the Four-Seven Debate in Korean Confucian Thought.

5. 우회로: 한국학공동위원회(JCKS) 주도의 소련 한국학자들과의 교류

JCKS는 1970년대 초에 새롭게 조직을 정비했다. 이정식(펜실베이니아대학, 정치학)이 새로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Herbert R. Barringer (하와이대학, 사회학), Han-Kyo Kim (신시내티대학, 정치학), Paul W. Kuznets (인디애나대학, 경제학), Gari K. Ledyard (콜롬비아대학, 역사학), James Palais (워싱턴대학, 역사학), Edward W. Wagner (하버드대학, 역사학)가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정식이 이끄는 JCKS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제는 미국과 소련의 한국학자들 간의 교류사업이었다.

이정식은 George Ginsburgs⁸⁰⁾로부터 편지 한 통(1971년 9월 24일)을 받고 이를 JCKS 위원들에게 회람했다. 긴즈버그는 1971년 여름에 모스크바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접한 소련 내 한국학의 흐름을 정리하여 이정식에게 보고한 것인데, 이정식은 JCKS에 그 편지를 회람했다. 이에 따르면, 긴즈버그는 소련의 The Institute of the Peoples of Asia and Africa (IPAA)를 방문하여 그곳 한국분과 연구진(Mazurov, Vannin, Pak, Gryaznov. *한국분과 대표인 I. S. Kazakevich는 외유 중)과 협의를 진행했다. 그는 이들과 미국과 소련의 한국학의 현황, 한국학 데이터의 분포와 유용성, 한반도통일에 대한 한미일의 태도와 관점을 비롯하여, 일본의 위상과 중미관계·중일관계, 닉슨의 북경방문과 이에 대한 소련의 정책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긴즈버그는 보고 말미에, “러시아 학자들은 북한의 정치와 경제에 대해 토론하기를 꺼리고

79) Letter (Key. P. Yang → Jun-yop Kim, 1971.8.3), Folder 2121, Box 185, RG 2, Accession 2, Series 1, SSRC records (FA021), RAC.

80) George Ginsburgs (1932~): 중국 상하이의 The College Francais de Shanghai에서 학사, 석사를 마치고 캘리포니아대학(L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유럽 법학, 구소련 법학이 전공이다. 한국학과 관련된 주요 작품으로는 *Soviet Works on Korea, 1945~1970* (1973)이 있다.

북한의 반응에 매우 민감했다. 오히려 그들은 남한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미국-소련 한국학자의 교류는 비교적 안전한 비정치적 의제(일제시대의 정치사와 경제사) 같은 것으로 해야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제안했다.⁸¹⁾

10월 말, 이정식은 Georgi F. Kim (Head, Korean Section,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Academy of Science, U.S.S.R)⁸²⁾이 하와이대학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서대숙으로부터 접하고 Kim이 미국 일정 중에 동부를 방문하여 JCKS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탐문하기도 했다.⁸³⁾ 이정식이 앞서 9월 28일 JCKS에 회람한 편지에 대해 Gari Ledyard는 긴즈버그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러시아 학자들이 미국의 학자들보다 전근대 연구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본다. 일제시대 연구는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문학에서는 서로 비슷하다고 본다. 1945년 이전으로 주제를 정하면 냉전이나 다른 정치적 이슈가 불려올 문제를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소련 간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1945년 이전의 역사와 문학을 다루는 모임이 적절해 보인다”는 논평을 보내왔다. 이 내용은 이정식이 수취하여 앞의 서대숙의 편지와 함께 JCKS에 회람했다.⁸⁴⁾

81) Letter (Chong-Sik Lee → Members of the Joint Committee on Korean Studies, 1971.9.28), Folder 2806, Box 239, RG 2, Accession 2, Series 1, SSRC records (FA021), RAC.

82) Georgi F. Kim이 서구세계에 알려진 것은 Glenn D. Paige가 1962년에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그의 안내를 받게 된 인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그는 경제사를 전공했고 소련어와 영어에 능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소련에 한국학 연구원 20명”, 중앙일보, 1971.6.18). 대표작은 Kim, Georgi (1965), *Korea's Working Class in the Revolutionary Movement and Socialist Construction* (Rabochii klass Korei v revoliutsionnom dvizhenii i sotsialisticheskome stroitelstve), Moscow: Nauka이다.

83) Letter (Chong-Sik Lee → Dae-sook, 1971.10.28), Folder 2806, Box 239, RG 2, Accession 2, Series 1, SSRC records (FA021), RAC.

Georgi F. Kim과 JCKS의 만남은 1971년 11월 19일에 성사되었다. 그 전에 이정식은 JCKS에 소련의 한국학 연구동향 보고서⁸⁵⁾와 긴즈버그의 정식보고서⁸⁶⁾를 회람했다. 그는 우선 미국과 소련의 한국학자들 간의 교류에서 시작하지만 4-5년 후에는 남북한 학자들을 모두 초청하는 형태로 회의를 확대할 것이며 JCKS가 이러한 아카데미 협력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이 가진 포부를 밝혔다.⁸⁷⁾ 그가 회람한 자료 가운데 우선 *Fifty Years of Soviet Oriental Studies* (1968)는 소련의 한국학의 현황을 살피기에 좋은 자료였다. 이 자료는 “1917년 러시아혁명 이전까지 한국학은 Russian Oriental Studies의 한 분야에 속했고, 전문적 분과로 자리 잡지 못한 채 분화된 의제를 마련하지도 못했다. 한국인의 계급투쟁이나 해방투쟁은 부르주아 방법론을 구사하는 비혁명적인(pre-revolutionary) 학생들에 의해 무시되기 일쑤였다.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과학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방법론에 입각한 한국학이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서술했다.

다음으로, 긴즈버그의 보고서는 국제관계, 지리학, 경제학, 법학, 역사, 정치, 문화/교육, 문학, 예술/미술, 기타의 세부항목으로 나뉘어 미국-

84) Letter (Chong-Sik Lee → the Members of the Joint Committee on Korean Studies (SSRC+ACLS), 1971.10.28), Folder 2806, Box 239, RG 2, Accession 2, Series 1, SSRC records (FA021), RAC.

85) I. S. Kazakovich (1968), “Korean Studies”, B. G. Gafurov, Y. V. Gankovsky ed., *Fifty Years of Soviet Oriental Studies (Brief Reviews)* (USSR Academy of Science, Institute of the Peoples of Asia). 이 글은 긴즈버그의 글(“A Profile of Soviet Literature on Korea, 1945~1970”)과 함께 『蘇聯에서의 韓國學』(國會圖書館(1972),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에 수록되어 국내에도 소개되었다. 이 책의 「머리말」에는 이정식이 이 글들을 제공했다는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86) George Ginsburgs, “Notes on Possible Discussion Topics with Russian Scholars”.

87) Letter “Contacts with Russian Scholars” (Chong-Sik Lee → Members of the Joint Committee on Korean Studies (SSRC+ACLS), 1971.11.17), Folder 2806, Box 239, RG 2, Accession 2, Series 1, SSRC records (FA021), RAC.

소련 한국학자들이 교류의 의제로 삼을만한 주제와 방법을 제시했다. 흥미로운 것은 <경제학>과 <역사> 분야에서의 제안이다. 긴즈버그는 <경제학>과 관련하여, (1) 토지개혁과 집단농장화를 다룰 수 있지만 북한만을 단일사례로 언급하면 위험하고 남북한 비교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토지개혁만이 아니라 정부의 농업생산증진책, 우수농업기술과 우수종자 확산프로그램, 임금구조와 생활수준, 기술서비스의 제공 같은 소재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것은 미국식 농정체계의 우수성을 어필할 수 있는 소재들이다. (2) 남북한의 산업화 과정에 관해서는 소련의 학자들이 북한과 한국의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많은 연구를 해온 상황이고 (3) 북한의 예산에 대한 접근과 연구 역시 소련 학자들이 앞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4) 남북한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교역시장의 국내화 시도에 대해서는 소련 학자들도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긴즈버그는 <역사>와 관련하여 소련의 학계가 이 부분에서 가장 엄격한(imperative)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1) 소련의 학계가 구한말 한미관계와 일제시대의 한일관계를 다루면서 미국과 일본의 ‘식민주의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2) 한국의 농민운동에 대한 연구에서 소련의 학계의 성취가 탁월하다는 점, (3) I. S. Kazakevich (the Institute of the Peoples of Asia and Africa 한국분과 책임자)의 전문영역인 ‘(한국)전쟁 이전의 한국의 농업체제’를 의제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긴즈버그는 1917년 이전의 한러관계에 대한 연구가 소련에서 대단히 부족하다는 점이 의아하다고 말하는 한편, 소련 학계가 유독 19세기 한미관계나 한일관계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한반도(Korea)가 피해자로 그려지는 ‘제국주의적 확장주의’(imperialist expansionism)의 프레임을 부각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정식은 Georgi F. Kim과의 면담(1971년 11월 19일)을 마치고 곧이어 소련 과학원(Academy of Science) 아시아민중연구소(The Institute of

the Peoples of Asia, IPA)⁸⁸⁾ 소장인 B. G. Gafurov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정식은 이 편지에서 Kim과의 협의내용에 기초하여, 1945년 이전을 소재로 1973년 6월 즈음에 모스크바에서 미국-소련 한국학자들의 학술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자료의 교환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길 희망했다.⁸⁹⁾ 이에 대해 Gafurov는 답신(1972년 4월 4일)을 보내왔다. 거기에는 소련 학자들도 미국과 다른 나라의 한국학자들과 접촉 기회를 늘리기를 바라고 있으며 1971년 긴즈버그가 모스크바에 왔을 때, 그리고 Kim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이 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정식은 재답신을 통해 한 두 명의 대표자들을 모스크바로 보내면 좋겠으며 이정식 자신이 방문할 수 있다면 더 없이 기쁘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⁹⁰⁾

이러한 교섭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정식은 Western Michigan University가 주관한 제4차 Kalamazoo Conference(1972.11)에 참석했다. 그는 이 회의에서 소련 과학원의 Boris Zanegin⁹¹⁾을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이 큰

88) 전신은 The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IOS)이다. 1960년에 IPA로 개칭되었고 1968년에 다시 원래의 이름 IOS로 개칭했다. Gafurov는 1956년부터 소장으로서 재직했다. 그의 공식직함은 “Academician”이었다. 이 기관에 대한 정보는 1972년 6월 19일부터 7월 12일까지 소련 과학원을 방문하고 돌아온 Thomas W. Robinson의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Robinson은 1971년 9월 Gafurov의 초청으로 소련을 방문했으며 그와 2시간가량 환담했다(Thomas W. Robinson (1972), “Report on a Visit to the Soviet Union”, Folder 2806, Box 239, RG 2, Accession 2, Series 1, SSRC records (FA021), RAC).

89) Letter (Chong-Sik Lee → B. G. Gafurov, 1971.12.13), Folder 2806, Box 239, RG 2, Accession 2, Series 1, SSRC records (FA021), RAC.

90) Memorandum (William R. Bryant → Joint Committee on Korean Studies, 1972.9.7), Folder 2806, Box 239, RG 2, Accession 2, Series 1, SSRC records (FA021), RAC. (*William R. Bryant: SSRC staff). 이정식-Gafurov 간의 편지는 이 문서에 첨부되어 있다.

91) Boris Zanegin은 소련 과학원 산하 The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IOS) 소속의 중국학자로서, 1972년 5월에 미국 ACLS와 소련 과학원 간의 협약으로 미국을 방문하였고, 이후 9개월 간 체류가 예정되어 있었다(“Russian is in U. S. for China

수확이었다고 JCKS에 보고했다. Zanegin은 소련방문보고서를 작성한 Ginsburgs나 Robinson과 이전에 모스크바에서 만나 긴밀히 협의를 진행했던 인물이다. 그는 Kalamazoo Conference에서 남한에서 온 관료들 과도 거침없이 토론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정식은 그와 몇 시간 면담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JCKS에 보고했다.⁹²⁾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Zanegin은 소련-미국 한국학자들의 학술회의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
- 그는 Korea만을 배타적으로(exclusively) 다루는 공식적인 양자회의의 가능성은 제외. 그는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소련이 동맹과 조약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Korea’라는 말을 Conference 제목에서 빼는 것일 수 있다고 제안. ‘Far Eastern International Situation’ 정도가 좋겠다고 언급.
- Zanegin은 3개월 간 미국에 더 체류할 예정. 모스크바로 돌아가기 전에 뉴욕에 들르게 될 것. 우리 위원회는 그와 함께하는 회합을 가질 필요성이 있음. 개인적으로 그가 Georgi Kim에 비해 불임성이 덜하고 덜 개방적이라고 느낌. 그래도 자신의 말에 정직함.
- Zanegin은 1940년대 초반에 중국 신강지역에서 소련자문관의 통역으로 일한 바 있음.
- Zanegin과 Georgi Kim, 그리고 Vladimir Lee를 만난 느낌과 평가: “소련학자들은 우리를 만나고는 싫어하지만 북한을 자극하길 원하지는 않음. 다만 그들은 이 장애물을 넘어설 방법을 찾고 싶어하기는 함. 우리가 가능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함.”

Sudies”, New York Times, 1972.6.25).

92) “Confidential: The Fourth Kalamazoo Conference and the Soviet-American Conference” (Chong-Sik Lee → The Joint Committee on Korean Studies, 1972.11.16), Folder 2806, Box 239, RG 2, Accession 2, Series 1, SSRC records (FA021), RAC.

○ Zanegin은 Ginsburgs의 보고서를 읽었다고 하고, Ginsburgs가 정확하게 썼다고 평가함.

그러나 JCKS의 바람과는 달리 미국-소련 한국학자들의 교류는 성사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정식은 1973년 파리에서 열린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Orientalists에서 소련 학자들을 일부 접촉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긴즈버그가 1971년에 이어 1974년 6월에 두 번째로 모스크바를 방문한 뒤 이정식에게 관련사항을 보고했다.⁹³⁾ 이 일정 속에서 긴즈버그는 알마아타의 한인집주지역을 방문하여 한 인공동체의 정체성 변화를 목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때 미국-소련 한국학자들 간의 학술회의의 가능성에 관해 비관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소련의 학자들은) 소련과 미국 한국학자들의 학술대회는 현재로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out of the question) 말했다. 그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정치적 이유들’(political reasons)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상황이 곧 변해서 그러한 시도가 가능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이슈에 관한 한, 문이 닫혀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긴즈버그)는 더 이상 이 주제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긴즈버그 앞에서 소련 학자들은 남한의 붕괴가능성, 일본의 한국진출(penetration)이 갖는 제국주의적 성격에 관한 논의에 집중했고, 북한의 김일성을 포함하여 소련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존재들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긴즈버그는 이들이 중국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이렇듯 통제불가능한 극동의 정세에 좌절한 듯 보였다

93) Letter (G. Ginsburgs → Chong-Sik Lee, 1975.1.20), Folder 2806, Box 239, RG 2, Accession 2, Series 1, SSRC records (FA021), RAC.

고 논평했다.

이정식이 다시 소련의 학자들을 만난 것은 1976년 8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Orientalists에서였다. 그는 JCKS를 대표하여 그 회의에 참가했다. 소련 과학원에서 7명의 학자가 왔지만 한국학을 다룬 논문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남한에서 온 학자들은 약 30명 정도였다. 이정식은 고려대의 한배호와 만나 그가 미국의 SSRC에 비견되는 조직을 한국에서 만드는 일을 책임지고 있고 JCKS와 긴밀히 협조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⁹⁴⁾ 이정식에게 가장 인상적인 성과는 Georgi F. Kim과 다시 만나고(8월 3일), 그의 소개로 B. G. Gafurov를 만난(8월 5일) 사건이었다. 이정식은 Kim이 JCKS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미국-소련 학자들의 교류를 소련 과학원이 추진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말이 모호했다고 논평했다. 다만, 그는 Kim이 이정식 자신의 소련 방문을 추진한 일이 무산된 점에 사과했고 다시 기회를 찾아보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걸었다. 이정식은 자신이 만난 소련 학자들의 명단을 JCKS에 보고했다.⁹⁵⁾

B. G. Gafurov (IOS,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소장)

Lev S. Sukhanov (소련 과학원 Foreign Department 부학과장)

Georgi F. Kim (IOS 과장)

Vladimir Lee (미국학연구소)

Boris Zanegin (미국학연구소)

94) 그 결과 설립된 단체가 현재의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http://www.kossrec.org/?page_id=490)이다. 1976년 4월 1일에 창립했고, 초대회장은 고병익(1976~1980)이었다. 한배호는 1982~4년 간 회장을 역임했다.

95) Letter (Chong-Sik Lee → The Joint Committee on Korean Studies, SSRC+ACLS, 1976.8.12.), "International Congress of Orientalists, Mexico City, 1976.8.3~8 and Contacts with Soviet Scholars", Folder 2807, Box 239, RG 2, Accession 2, Series 1, SSRC records (FA021), RAC.

I. S. Kazakevich (IOS)
Georgi Fjodorovitch (IOS)
G. K. Shirokov (IOS, 부소장)
Ivanove (IOS)

한편, JCKS 안에도 이정식의 제안에 대한 불신과 이견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JCKS의 기금으로 소련 학자들을 초청하자는 제안에 대해 임영일은 “소련 학자들을 남한의 경제발전과 관련된 학술회의에 초청하자는 당신(이정식)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들을 학술회의에 초대하는 데에 저는 ‘심리적인 알려지’가 있습니다. 러시아 학자들은 역사학과 경제학에서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남한에서 국내외 자본이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일을 문제삼을 것 같습니다. JCKS의 돈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⁹⁶⁾라고 답했다. Ledyard 역시 “한국문제를 아시아문제 일반에 대한 것으로 해서 소련-미국의 학술회의의 한 부분에 넣어 다루자거나, 또는 학술회의 이후에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 다루자는 Georgi F. Kim 교수의 제안에 대해 저는 세부적인 부분을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⁹⁷⁾라고 응답했다. Ledyard가 언급한 문제는 실제로 소련 학자들에게는 치명적이었는데, 그들은 늘 학술회의가 북한을 자극하는 사태를 야기할까봐 늘 노심초사하고 우려했다. 결론적으로, 한국문제를 다루는 미국과 소련 학계의 관점의 차이, 남북한의 정세에 의해 규정되는 측면, 남북한 학자들까지 초청하여 회의를 진행할 때 예견되는 난점 등이 제기되었던 셈이다.⁹⁸⁾

96) Letter (Youngil Lim → Patrick G. Maddox, 1976.9.1), Folder 2807, Box 239, RG 2, Accession 2, Series 1, SSRC records (FA021), RAC.

97) Letter (Gari Ledyard → Patrick G. Maddox, 1976.9.1), Folder 2807, Box 239, RG 2, Accession 2, Series 1, SSRC records (FA021), RAC. (*Gari Ledyard: 콜롬비아 대학 동아시아언어지역센터 소속).

6. 맺음말: 냉전환원론 비판

역사학자 서중석은 김준엽·김창순의 『한국공산주의운동사』(제1권)와 서대숙의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818~1948*이 각각 1967년에, 그리고 스칼라피노·이정식의 *Communism in Korea*가 1972년에 출간되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3종의 책이 모두 반공시대의 저작 들임에도 불구하고, 금기시됐던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공개해 놓아 역사연구에 큰 도움을 주었다.”⁹⁸⁾고 말한 바 있다. 이들 세 저작의 성립은 본고에서 다룬 한국학의 초기 네트워크(network)와 자료(materials) 구축에 투여된 열정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한반도의 정세에 비교적 자유로운 처지에 있었던 미국 내 한국학자들의 움직임(소련의 한국학자과의 교류)도 냉전과 학술장의 관계를 새삼 달리 보게 하고, 또 한국학 연구경향의 권역별 편차가 갖는 의미를 새삼 숙고하게 하는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1960년대에 발원한 한국학이 국내외의 네트워크의 산물이었음을 밝혀냈다. 이를테면, 한국학은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서로 접속하여 확장/분화해가면서 우발적으로 구성된 산물이었다. 한국학은 냉전기 미국 중심의 비대칭적인 글로벌 지식생산체계에 접속/종속된 채로 출발했다. 또, 중국학과 일본학의 그늘이 한국학의 지식생산 전반을 뒤덮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카데미즘의 시민권을 확

98) 미국-소련 한국학자들 간의 교류는 JCKS에 의해 추진되지 못하고, 캘리포니아 대학(버클리)의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주관으로 1976년 12월 6~11일 간(5일) 미국-소련 공동학술대회의 형태로 개최되었다. 주제는 아시아에서의 국제관계, 안보, 정치발전으로 정해졌다. Robert A. Scalapino가 주관했던 것으로 보이며 회의 준비과정에 관한 정보는, Letter (Robert M. Price → Chong-Sik Lee, 1976.10.28), Folder 2807, Box 239, RG 2, Accession 2, Series 1, SSRC records (FA021), RAC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9) “한국공산주의운동사_김준엽”, 음성신문(2015.3.26).

보하기 위해 국내의 자원을 동원하고 구축해간 결과로 얻어진 결실이 당시의 한국학이었다. SSRC의 CEAI가 애초 ARC를 선택했을 때에는 중국학을 강화한다는 목적이 분명했지만, 이후 ARC는 한국학의 본산으로 거듭났다. 또, ARC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와 지적 자산은 JCKS로 이어졌으며, 다시 ARC로 순환되었다.¹⁰⁰⁾ 이것은 ‘한국학의 공생산’이라는 테제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¹⁰¹⁾ 1960~70년대 한국과 미국에서 형성된 한국학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과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산물이었다.

한편, 본 연구는 1960~70년대의 한국학을 미국발 지식의 단순한 확대재생산, 그리고 냉전지식의 전형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을 비판했다.

100)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1969년 9월 1~6일 간 한국에서 열린 《한국의 전통과 변천》(Conference on Tradition and Change in Korea)을 들 수 있다. 이 학술회의는 ARC와 JCKS의 공동주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회의결과로 출간된 단행본에서 김준엽은 “‘한국학’ 자체를 주제로 하여 모인 국제학술회의는 이것이 처음”(「서문」)이라고 언급하였다(한국연구실 편(1973), 『한국의 전통과 변천』, 고려대학교 출판부). 미국에서는 E. Wagner, M. Rogers, J. Palais, Han-Kyo Kim, V. Brandt, F. Moos, G. Ledyard, Chong-Sik Lee, G. Beckmann, G. Henderson, Chae-Jin Lee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성과를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과정에서 논문을 선별하는 일에는 Gary Ledyard가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Letter, (John C. Campbell → Jun-yop Kim, 1971.2.1), Folder 2121, Box 185, RG 2, Accession 2, Series 1, SSRC records (FA021), RAC. * J. C. Campbell은 SSRC/JCKS staff).

101) 이 글에서 ARC 측에서 섭외한 한국인 연구자들은 필요한 부분에서만 지면에 이름을 한정적으로 노출하였다. ARC에서 개최한 학술회의의 결과물(통상 단행본으로 발행)에는 이들의 인명이 모두 담겨 있다. ARC가 초기에 개최한 회의들로서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roblems of Modernization in Asia* (1965), *International Seminar “Communism in Asia”* (1966), *Conference on Tradition and Change in Korea* (196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roblems of Korean Unification : August 24~29* (1970),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Futures, November 14~17* (1973)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사후 편집을 통해 발표문만이 아니라 토론의 경과를 보여주는 글도 함께 포함하여 출판하기도 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이슈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위의 1965년 회의에서의 토론내용을 통해 한미 학자들 간의 ‘지식의 공생산’ 풍경을 조명한 글로는, 김인수(2017), 앞의 논문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학을 본국학(구한말) — 조선학(일제시대) — 국학(해방 이후)으로 이어진 종전까지의 흐름을 끊어내고 자료(materials)를 중심으로 학술교류를 늘려가면서 경성인문과학(professional Humanities knowledge)으로서 아카데미즘에 안착시키고자 한 결과 얻어진 산물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반도에서는 불가능했던 학술교류가 미국과 소련, 또는 제3국 등 한반도 외부에서 시도될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자료’를 중시하고 ‘실증’에 몰입하고자 하는 태도가 목격된다. 이것은 한국학을 아카데미즘의 제도로 구축하려는 시도인 동시에, 당시까지 일본인 학자 중심의 ‘조선학’이 누렸던 패권을 해체하려는 의지로도 읽을 수 있다. 또, 이것은 선전(propaganda)이 학술을 집어삼켰던 당시 한반도의 학계 현실을 뛰어넘은 길로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물론, 그것이 반공주의(anti-communism)와 자유주의의 결합으로 특징지어지는 냉전의 인식체계 바깥에 존재했다는 말은 아니다. ‘자료중시’와 ‘실증’의 태도라는 것이 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있다거나 이데올로기의 바깥에 존재한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독재에서 유신으로 치달아간 1950~70년대 남한, 그리고 세습독재의 틀을 구축해갔던 당시 북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학(Science)으로서의 한국학’의 제도화, 지식 자원(knowledge resources)의 확충이 오히려 냉전의 본산인 미국이 제공한 기금과 네트워크에 의해 가능했다는 아이러니를 다시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¹⁰²⁾

102) 물론 그 의미와 함께 한계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안드레 슈미드(2019)는 미국에서 이루어진 최근 10여 년간의 북한연구가 “시간의 변화를 무시하는 획일적인 전체주의 지배체제, 기이한 정치문화”라는 냉전시대의 논리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이러한 경향을 낳은 최초의 산물로서 스키타라피노·이정식의 책을 예시로 들고, 이 책이 비록 대작의 반열에 오르기에 충분한 책이기는 하지만 북한공산당이 평양에서 펴낸 국가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북한의 국가권력의 역량을 과대표상하는 오류에

이 글에서 다룬 인물들은 Armstrong (2014)의 분류에 따르면 한국학(Korean Studies) 2세대에 해당한다. 한국인 학자들은 일제의 총력전, 해방, 국공내전, 한국전쟁, 피난과 월남, 그에 이은 1950년대의 지적·사회적 격변, 그리고 짧은 미국유학 경험을 원체험으로 갖고 있었던 이들이다. 미국인 학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미군정, 한국전쟁, 그리고 주한미군 등 주로 군대를 통해 한국을 체험한 이들이다. 이들에게서 보이는 반공주의와 자유주의의 기묘한 동거(‘반공자유주의’)는 어쩌면 자신들의 원체험에 의한 자동반사적 반응으로 보는 편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들이 이 원체험에 기초하여 한국학을 제도화해갔던 1960년대라는 시간은, 특히 JCKS가 결성된 1967년이라는 시점은, 케네디 행정부에 의해 설계된 평화봉사단(Peace Corps)이 한국에 파견되기 시작(1966년)한 시간과 정확히 겹치고 있다. 그리고 이 평화봉사단을 통해 한국을 체험한 이들은 이후 대거 한국학 3세대를 형성하여 한국학의 비판적 혁신을 이루어내는 주체들로 거듭났다. 또, 1960년대에 활성화된 록펠러재단/포드재단 — CEAI (SSRC) — ARC — JCKS (SSRC+ACLS)의 네트워크로부터 한국사회를 연구대상으로 삼는(사회조사방법론에 기초한) ‘사회과학적 한국학’이 국내에서 분화되어 나왔고, 그 가운데 일부는 1970년대에 ‘사회조사의 한국화(Koreanization)’

빠졌다고 본다. 슈미드에 따르면, 미국의 북한 연구에서는 이런 경향이 이후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북한의 선전내용을 저자가 분석의 전제로 삼는 오류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안드레 슈미드(2019), 고선호 역, 『북한을 역사화하기: 국가사회주의, 인구이동, 그리고 냉전사학』,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124호, pp. 175-178, pp. 186-187). 인용하는 자료의 생산경위와 성격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태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료에 대한 이러한 쟁점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 본 연구에 대해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수 활용된 RAC의 자료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한국 내 자료가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한국학 네트워크의 골격을 스케치하는 데에 치중했고, 그것을 들여다보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자료는 RAC의 자료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 둔다.

를 제창하는 기수(旗手)로 거듭났다는 점도 유념해둘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학의 역사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시간성을 의식하면서 관찰, 서술될 필요가 있다. 한국학의 출발에 냉전이 미친 영향은 지대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가 갖는 의미를 모두 냉전으로만 환원할 수는 없다.

참고문헌

【자 료】

The Rockefeller Archive Center (RAC) Materials.
ITEMS (*SSRC의 Newsletter).

【논 저】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2017), 『아연60년사』(제1권 역사편), 아연출판부.
- 국회도서관(1972), 『蘇聯에서의 韓國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 김경일(2003), 「한국학의 기원과 계보: 한국과 동아시아,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64호.
- 김성보(2018), 「미국·한국의 냉전 지식 연결망과 북한연구의 학술장 진입」, 신주백 편, 『근대화론과 냉전 지식 체계』, 혜안.
- 김인수(2017), 「한국의 초기 사회학과 ‘아연회의’(1965): 사회조사 지식의 의미를 중심으로」, 『사이間SAI』 22호.
- 동천(1960), 「한국연구도서관 발전 3년사」, 『한국연구도서관통보』 제11호.
- 로버트 스칼라피노·이정식 공저(2015), 한홍구 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 돌베개.
- 박현선(2015), 「냉전 문화와 한국학」, 『사이間SAI』 18호.
- 브루스 커밍스(1999), 김홍중 역, 「연구영역의 전이: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지역연구와 국제연구」,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김경일 편), 문화과 학사.
-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편집부(1966), 「제5회 동양학심포지움 개요: 한국학의 방법론과 체계」,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동아문화』 6호.
- 안드레 슈미드(2019), 고선호 역, 「북한을 역사화하기: 국가사회주의, 인구이동, 그리고 냉전사학」,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124호.
- 양기백(1968), 「미국내 한국학 도서관계의 최근 동향」,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문화』 9(2).
- 이봉범(2020), 「냉전과 북한연구, 1960년대 북한학 성립의 안팎」, 인하대학

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56호.

임준수(2012), 『나무야 미안해: 천리포수목원 일군 민병갈의 자연사랑』, 해누리.

정문상(2014), 「포드재단(Ford Foundation)과 동아시아 ‘냉전지식’」, 『아시아 문화연구』 36호.

정종현(2016), 「아시아재단의 “Korean Research Center(KRC)” 지원 연구」, 『한국학연구』 40집(2016.2).

채오병(2014), 「냉전과 지역학: 미국의 헤게모니 프로젝트와 그 파열, 1945~1996」,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104호.

한국연구실 편(1973), 『한국의 전통과 변천』, 고려대학교 출판부.

Armstrong, C. (2014), “Development and Directions of Kore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ontemporary Korean Studies*, 1(1).

Lankov, A. (2014), “Korean Studies in the Russia of the Soviet Period”, *Journal of Contemporary Korean Studies*, 1(1).

Hucker, C. O. (1968),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Inc., at the Age of Twenty: Annual Report for 1967~1968”,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28(1) (Nov., 1968).

Kim, Keong-il ed. (2004), *Pioneers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Kim, S. & M. Robinson ed. (2020), *Peace Corps Volunteers and the Making of Kore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원고 접수일: 2020년 8월 4일

심사 완료일: 2020년 8월 24일

게재 확정일: 2020년 8월 25일

ABSTRACT

Foundation and Networks of Korean Studies
in the 1960s~1970s:

Focusing the Activities of the Council on Exchange with Asian Institutions (CEAI), the Asiatic Research Center (ARC), and the Joint Committee on Korean Studies (JCKS)

Kim, In-soo*

This paper analyzed the formation of Korean studies in the 1960s and 1970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and activities of the Asiatic Research Center (ARC, the Korea University), the Council on Exchange with Asian Institutions (CEAI), and the Joint Committee on Korean Studies (JCKS). CEAI and JCKS belonged to the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SSRC). Korean studies had no choice but to start under an America-centric and asymmetrical knowledge production system during the Cold War. In addition, Korean studies were not as developed as Chinese and Japanese studies. At that time, Korean studies were results of mobilization and establishment of knowledge resources to obtain citizenship of the Academy.

The purpose of the CEAI's decision to support the ARC was to strengthen Chinese studies. However, the ARC was reborn later as the

* Associate Researche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headquarter of Korean studies. Networks and intellectual assets formed through the ARC exchange program supported by the CEAI were inherited to the JCKS and circulated back to the ARC. As such, Korean studies formed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1960s and 1970s were not separate from each other, but were created by interactions and networks (“The co-production of Korean studies”). In the proces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Korean studies, a subject that was emphasized the most was “an empirical research based on materials/data”. The first project launched by the ARC, supported by the Rockefeller Foundation and the Ford Foundation, was to collect and edit historical data concerning Korea. The first project JCKS started since it was established in 1967 was to host an academic conference inviting librarians. JCKS also tried to create the flow of ‘academic detente’ through exchanges with scholars of Korean studies in the Soviet Uni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Korean studies as “Science” and the systematic collection of knowledge resources were impossible in a Korean peninsula in which dictatorship prevailed and which was overwhelmed by the cold war ideology. Ironically, what made it possible was the funds and networks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The impact of the Cold War on the formation of Korean studies was strong and enormous. However, in order to grasp the meaning of its effect and aftermath, we should be free from the Cold War reductionism.

